RUSSIA IN&OUT

RIO

2026. 10 | No. 30

특집 기획 러시아 제조업의 기술 자립: 설계는 약진, 기계는 부진

이슈 진단 한국의 북극항로 정책: 기원·현황·전망

RIO 초대석 야코벤코 《러시아 시보드냐》 부사장, 다극화 시대의 세계 질서를 말하다

크렘린 전망대 경유의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의 문화적 기억

경제 내비게이션 제국의 황혼: 달러 시스템의 종말

역사 프리즘 불굴의 의사 니콜라이 부르덴코: 소련 신경외과를 개척하다

예술 현장 알프레드 시닛케: 고향 없는 음악의 고향

미디어 트렌드 훈풍과 한풍 사이: 에너지 강국 위상과 연료 위기



ISSN 3091-9371 (Print) | ISSN 3091-9487 (Online)

Photo Essay

지하보도는 어디서든 늘 지옥의 입구를 연상케 한다. 오가는 사람들은 발 아래를 살피며 빛이 드는 입구 쪽으로 총총걸음을 떼기 일쑤다. 하루는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인근 지하도를 여느 때처럼 서둘러 걷던 나를 뭔가가 문득 멈춰 세웠다. 바이올린 소리였다. 늙수그레한 연주자의 손놀림과 함께 마법 같은 선율이 흘러나왔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였다. 정말 기적의 순간이었다. 그 자리에서 카메라를 꺼내 담은 추억의 장면을 한국의 RIO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사진·글: 콘스탄틴 코코시킨]

발간사

냉전기 소련을 수렁으로 몰아넣은 전략가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1997년 『거대한 체스판』에서 "우크라이나 없는 러시아는 유라시아 제국이 더는 아니다"라는 명제로 탈냉전 시대 미국의 러시아 억제 설계도를 그렸다. 그러나 2012년 『전략적 비전』에서 그는 러시아와 튀르키예까지 끌어안는 '더 큰 서구'를 건설하라고 주문했다.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제의 적을 내일의 동반자로 재배치한 것이다. 미국 이익의 극대화라는 원칙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원칙을 구현하는 수단은 소련과의 경쟁, 러시아의 부활, 중국의 부상이라는 시대의 도전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했다. 역설은 여기서 시작된다. 오늘날 워싱턴은 그의 마지막 처방을 외면한 채 30년 전의 체스판에 갇혀 대립과 봉쇄를 되풀이하고 있다. 스승의 낡은 수(手)를 고집하는 제자들이 스승이 지키려던 제국의 쇠퇴를 스스로 재촉하는 셈이다. 전략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할 때 원칙은 교조가 되고, 패권은 관성으로 전락한다.

RIO 30호는 쇠퇴하는 질서의 균열과 그 틈새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국가와 인간의 궤적을 함께 추적한다. 「RIO 초대석」의 야코벤코는 러시아를 포용하는 새로운 질서를 거부한 전략적 한계에서, 「경제 내비게이션」의 하진은 부채라는 '가짜 돈'에 기대어 제조업의 토대를 허물어 온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미국 쇠퇴의 근원을 찾는다. 러시아는 이 균열의 다른 편에서 나름의 출구를 힘겹게 모색하고 있다. 「특집 기획」은 서방의 전면적 고립에 맞서 제조업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성과와 한계를, 「미디어 트렌드」는 에너지 산업의 고도화로 강대국 위상을 지키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과 국내 연료 위기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한 현실을 조명한다. 시대의 격랑을 통과하는 것은 국가만이 아니다. 「역사 프리즘」과 「예술 현장」은 제정 말기부터 소련의 탄생과 붕괴에 이르는 격동을 온몸으로 관통하며 저마다 족적을 새긴 외과의 부르덴코와 작곡가 시닛케를, 「크렘린 전망대」는 체호프에게는 경유지였고 만델시탐에게는 비극의 종착지였으며 솔제니친에게는 귀환의 관문이었던 블라디보스토크의 문학적 되새김을 소개한다. 「이슈 진단」은 북극의 변화보다는 부산의 위기감과 조기 대선이라는 국내 정치의 동력으로 진화해 온 한국 북극항로 정책의 실상을 짚는다. RIO는 요동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러 관계가 한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인류 사회의 진보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탐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0월 31일

편집위원회

RUSSIA IN&OUT

RIO 2026년 10월호 No. 30

편집주간 김현택
편집위원 라승도, 박종호, 이대식, 김유정, 이태훈, 임명묵
디 자 인 김지연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1813호
https://rioins.kr
info@rioins.kr

차례

각 차례 제목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4 | 특집 기획
러시아 제조업의 기술 자립: 설계는 약진, 기계는 부진 올레크 지코프

러시아 제조업의 기술 주권이 설계 S/W에서는 상당히 자립했지만, 공작기계·반도체 장비 등 생산수단에서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병목 현상을 진단한다.



17 | 이슈 진단
한국의 북극항로 정책: 기원·현황·전망 정지훈

한국 컨테이너선의 북극항로 첫 시범 운항을 계기로 북극항로 정책 추진 배경을 짚어보고, 국내 해운 역량 강화, 러시아 등 북극권 파트너와의 신뢰 구축 등 향후 과제를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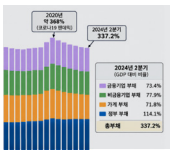
28 | RIO 초대석
야코벤코《러시아 시보드냐》부사장, 다극화 시대의 세계 질서를 말하다 김현택

러시아 외교부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한 언론인 알렉산드르 야코벤코를 만나, 다극화 시대의 세계 질서, 러시아 대외 정책, 인공지능(AI) 주권 등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을 들어본다.



42 | 크렘린 전망대
경유의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의 문화적 기억 라승도

지난 10월 20~21일 솔제니친 동상 철거·이전·원상복귀 사태를 계기로 경유지로서 블라디보스토크의 지역적 성격 강화에 일조한 러시아 문인들에 대한 도시의 문화적 기억을 소개한다.



52 | 경제 내비게이션
제국의 황혼: 달러 시스템의 종말 미하일 하진

미국의 번영이 실질소득이 아닌 신용 팽창이라는 '가짜 수요'에 의지했고, 금융 엘리트의 기득권으로 부채 탕감이 불가능해 달러 패권은 지역 블록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음을 조명한다.



59 | 역사 프리즘
불굴의 의사 니콜라이 부르덴코: 소련 신경외과를 개척하다 올가 댜트코

니콜라이 부르덴코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가난한 의학도에서 소련 신경외과의 선구자로 성장하기까지 그가 진료와 연구, 교육에서 보인 헌신과 의학사적 업적을 되짚어본다.



66 | 예술 현장
알프레드 시닛케: 고향 없는 음악의 고향 류희윤

쇼스타코비치가 익숙한 형식 안에 의심과 불안을 숨겨 놓았던 것과 다르게, 서로 다른 시대의 음악을 한 작품 안에 불러들였던 작곡가 알프레드 시닛케의 삶과 예술 세계를 고찰한다.



75 | 미디어 트렌드
훈풍과 한풍 사이: 에너지 강국 위상과 연료 위기 김유정

'에너지 주간'과 '가스수출국포럼' 개최, 디젤 거래 등을 계기로 에너지 강국의 대외적 위상과 국내 연료 부족이라는 러시아의 모순적 현실, 전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과제를 살펴본다.

러시아의 기술 주권, 그 기원과 현황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세계의 기술혁명을 선도하기보다는 외부의 선진 기술을 빠르게 도입·흡수·내재화하고 자국의 기술로 전환하며 산업 강국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2014년 이후의 제재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의 글로벌 기술 분업에 의존하던 발전 방식을 흔들며, 수입 대체를 넘어 '기술 주권' 확보를 국가적 과제로 부상시켰다. 이번 특집은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출발해 러시아 제조업의 실제 기술 자립 수준, AI·반도체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의 가능성,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통해 러시아가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연재 순서

1. 러시아 기술 주권 투쟁 500년사
2. **러시아 제조업의 기술 자립: 설계는 약진, 기계는 부진**
3. 차세대 기술 주권: AI·반도체·컴퓨팅과 새로운 기술 경쟁
4. 에너지 기술 주권: 기술 자립에서 세계 시장 경쟁력으로

러시아 제조업의 기술 자립
설계는 약진, 기계는 부진

올레크 지코프 C3D Labs 대표

들어가며: 엔진은 통과했는데, 비행기는 아직 아니다

2026년 6월 5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러시아 항공청은 PD-8 항공엔진에 형식증명을 내줬다. 2022년 이후 공급이 끊긴 프랑스·러시아 합작 엔진 SaM146을 대신할 엔진이다. 개발사인 통합엔진제작사(ODK)는 이 엔진을 위해 25개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그중 17개는 러시아에 없던 기술이라고 밝혔다.[1] 그런데 석 달 뒤 항공청 청장은 이 엔진을 단여객기 SJ-100의 인증은 2027년 1분기로, 주력 중형 여객기 MS-21의 인증은 2027년 중반으로 미뤄진다고 말했다.[2]

엔진은 통과했는데 비행기는 아직 아니다. 필자는 이 장면만큼 러시아 제조업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부품 하나, 프로그램 하나를 국산으로 바꾸는 일과 수천 개의 국산 부품과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인증받고 대량 생산해 시장에서 팔리게 만드는 일 사이에는 먼 거리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러시아 기계 제조업의 기술 주권은 세 문장으로 요약된다. 설계는 되찾고 있다. 기계는 아직 빌려 쓴다. 시장의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이 글에서 제조업은 자동차·항공

> “러시아 기계 제조업의 기술 주권은 세 문장으로 요약된다.
> 설계는 되찾고 있다. 기계는 아직 빌려 쓴다.
> 시장의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기 같은 기계제품과 이런 제품을 만드는 공작기계·로봇·반도체 장비 같은 생산설비를 가리킨다. 필자는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의 심장이라 할 '기하학적 커널'을 만드는 회사를 이끌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공장 바닥보다 한 층 더 아래에서, 제품이 처음 태어나는 설계 화면에서 출발해 러시아 제조업을 바라본다.

1. 기술 주권이란? 공장이 있다고 기술을 쥔 것은 아니다

항공기 엔진의 터빈 날개 하나를 만든다고 해 보자. 먼저 컴퓨터로 복잡한 곡면을 그리고, 섭씨 1,000도가 넘는 열과 압력을 견딜지 계산한다. 그 설계를 공작기계가 알아듣는 명령으로 바꿔 깎아내고, 검사에서 결함이 나오면 설계를 고쳐 다시 만든다. 이 고리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외국 기업의 허가와 업데이트, 부품 공급에 매여 있다면, 완성품에 러시아 상표가 붙어 있어도 기술적 자립은 반쪽이다. 그래서 필자는 기술 주권을 아래 네 개의 층으로 나눠 본다. 러시아는 위층인 설계에서 가장 앞서 있고, 아래층인 생산수단과 맨 위층인 시장 경쟁력에서 가장 약하다.

층위	핵심 질문	러시아의 현재 위치(2026년 하반기)
① 지식·설계 SW	우리 도구로 설계·검증할 수 있는가	상대적 강점. 설계·관리 소프트웨어 국산화가 항공엔진 현장까지 진입. 고난도 해석·전자설계는 취약
② 생산수단	공작기계를 우리가 만드는가	최대 병목. 공작기계 국산 점유율 33%, 로봇 밀도 1만 명당 29대, 노광장비 350나노급
③ 양산·인증	같은 품질로 반복해서 만드는가	지연 반복. 국산화 민항기 인증이 2027년으로 이월
④ 시장 경쟁력	남이 사고 싶어 하는가	미검증. 국방·국가 조달·내수 보호에 크게 의존

2. 정책: '수입 대체'에서 '기술적 리더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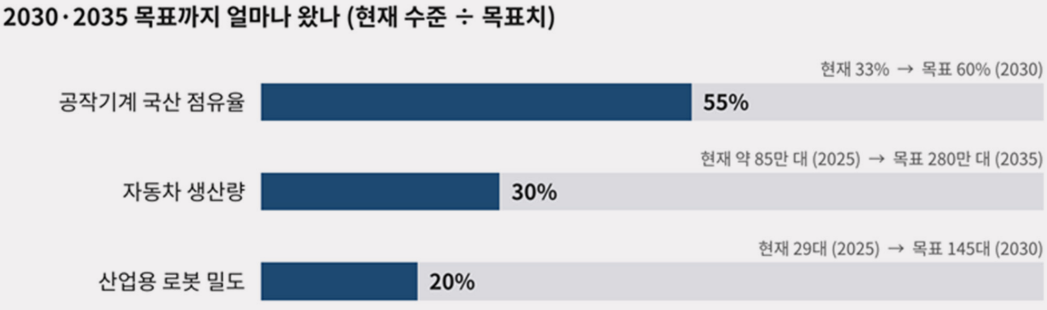
러시아의 대응이 2022년에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다. 2014년 산업정책법과 2020년 공작기계 산업 발전 전략이 토대를 놓았고, 2024년 5월 대통령령은 2030년 국가 목표에 '기술적 리더십'을 넣었다. 이를 실행하는 국가 프로젝트 '생산수단과 자동화'는 공작기계와 로봇, 자동화를 핵심 대상으로 삼아 2030년 생산수단 '기술 자립도' 95%를 내걸었다.[3] 2026년 들어 목표는 더 구체적인 숫자로 내려왔다. 2월에 수정된 제조업 종합 전략은 2030년까지 제조기업의 80% 이상이 핵심 생산·관리 시스템에서 국산 소프트웨어를 쓰도록 했고,[4] 8월에 승인된 자동차산업 전략은 2035년 연간 280만 대 생산과 신차 시장 국산 비중 80%를 목표로 잡았다.[5] 공작기계는 현재 33%인 국산 점유율을 2030년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9월에 새로 나왔다.[6] 수단

> “기술 주권 정책 수단은 세 가지로,
> 첫째, 국가 조달과 국영기업 수요로 첫 시장을 만들고,
> 둘째, 수요 기업과 개발사를 묶어 공동 개발하게 하며,
> 셋째, 개발비와 판매 할인분을 보조금으로 메워줘”

은 세 가지다. 국가 조달과 국영기업 수요로 첫 시장을 만들어주고, 수요 기업과 개발사를 협의체로 묶어 공동 개발하게 하며, 개발비와 판매 할인분을 보조금으로 메워준다.

이런 숫자를 읽을 때는 착시를 조심해야 한다. ‘기술 자립도 95%’는 정부 고유 산식에 따른 목표 지표일 뿐, 국산 제품이 시장의 95%를 차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공작기계를 두고도 어떤 숫자를 고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이에 따라 본 글은 지표의 정의와 측정 단위를 비교·검토하고(3-4. 공작기계), 인증과 인도 등 실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애초 목표와 대조해 지연 정도를 분석함으로써(3-3. 항공),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 수준을 평가한다. [그림 1]은 그렇게 본 주요 목표의 진척도다. 로봇 밀도는 2030년까지 약 5배, 자동차 생산은 2035년까지 약 3.3배로 늘려야 한다.

[그림 1] 주요 목표 대비 현재 수준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2026.9), 러시아 정부 자동차산업전략 2035(2026.8). 러 산업통상부 로봇 통계 / RIO 계산

3. 성과 점검: 숫자로 본 여섯 개의 현장

3-1. 국방으로 쏠리는 투자, 뒤처지는 민수 제조업

러시아 산업 생산 증가율은 2024년 5.1%에서 2025년 1%대로 꺾였고, 2026년 1~9월에는 0.2%에 그쳤다. 그런데 같은 통계 안에서 정반대의 흐름이 보인다. 2026년 9월 전자·광학 제품 생산은 전년 대비 38%, 항공기와 선박이 들어간 ‘기타 운송장비’는 29%, 무기와 탄약이 포함된 금속가공 제품은 20% 늘었다. 모두 국방 조달과 직결된 업종이다.[7] 반면 2025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은 17% 가까이 줄었다.[8]

러시아에는 사실상 두 개의 제조업이 공존한다. 국가 주문을 받는 국방·전략 제조업과 금리와 소비에 묶인 민수 제조업이다. 기술 주권 투자도 앞쪽으로 쏠린다. 핀란드 중앙은행 신흥경제연구소(BOFIT)는 2026년 5월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우선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도 수입 대체 성과는 제한적이고, 고급 중간재와 기계류의 수입 의존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9] 기준금리가 14%인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새 국산 설비에 투자할 여력도 크지 않다.[10]

3-2. 자동차: 공장은 러시아 것, 설계는 중국 것

자동차는 엔진과 변속기, 전자제어, 안전장치까지 수만 개의 부품을 하나의 설계로 묶어야 하는 기술 주권의 가장 까다로운 시험지다. 2022년 이전 러시아 승용차 시장의 상위권은 기아·현대·르노·토요타처럼 외국 기업이 자체 설계로 러시아 공장에서 만든 차였다.[11] 이들이 러시아 시장을 떠나자 생산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5년 승용차 생산은 67만 3천 대로 12% 줄었다가 2026년 1~9월에는 16% 늘었다.[12]

그러나 진짜 질문은 '몇 대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설계와 기술로 만드느냐'다. 2026년 상반기 러시아에서 판매된 중국 브랜드 자동차의 54%가 러시아에서 조립됐고, 판매 상위권에 오른 러시아 브랜드 '테넷(Tenet)'은 옛 폭스바겐 칼루가 공장에서 중국 체리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2026년 1분기 신차 판매의 68.7%를 이런저런 모습을 한 중국 자동차산업이 차지했다는 분석도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옛 현대차 공장은 이 변화를 압축한다. 연 20만 대 넘게 생산하던 이 공장은 2024년 테넷을 만드는 그룹에 상징적 가격으로 넘어갔고, 현대차의 재매입 옵션은 2026년 1월 만료됐다.[13] 공장의 주인은 러시아로 바뀌었지만, 설계의 주인은 독일·한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국산화율이라는 숫자를 볼 때마다 그것이 조립 위치를 재는지, 설계와 핵심 부품의 통제권을 재는지부터 물어야 하는 이유다.

3-3. 항공: 엔진은 통과, 비행기는 대기

PD-8은 원래 2023년 인증이 목표였다. 그러나 인증 일정은 2025년 말, 2026년 1분기, 4월, 5월로 거듭 밀렸고, 2026년 6월에야 '제한 수명' 조건부로 형식증명을 받았다. 2022년 민간항공 발전계획에서는 MS-21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2대를 인도할 예정이었으나 2026년 5월 기준 MS-21은 인증 비행의 약 3분의 1만 마쳤고 계획 항속거리도 5,100km에서 3,830km로 줄었다. 형식증명은 수천 개의 부품과 시스템이 하나의 안전 기준을 함께 통과했다는 증명서다. 엔진은 통과했는데 비행기 전체가 늦어진다는 것은 개별 기술보다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능력이 진짜 병목이라는 뜻이다.

> "자동차 공장 주인은 러시아로 바뀌었지만,
> 설계 주인은 독일·한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항공은 엔진 같은
> 개별 기술보다는 시스템 통합 능력이 진짜 병목"

3-4. 공작기계: 기업은 네 배, 점유율은 3분의 1

공작기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다. 이것을 수입하면 설계를 아무리 국산화해도 생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외부에 묶인다. 외형 성장은 뚜렷하다. 생산기업은 2021년 40개에서 2026년 약 160개로 늘었고, 컴퓨터로 제어하는 고급 CNC 공작기계 생산은 2022년 652대에서 2024년 1,183대로 늘었다.[14] 그런데 러시아산 공작기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금액 기준 33%인 반면, 기계 수 기준으로는 외국산 공작기계가 시장의 최대 98%를 차지한다는 추정도 있다. 두 숫자는 모순이 아니다. 정부가 고시한 산식은 금액 기준이다.[15] 금액으로는 3분의 1인데 기계 수가 극히 일부라는 것은 러시아산이 값비싼 대형·고정밀 장비에서는 몫을 차지하지만, 값싼 범용 소형기는 거의 수입한다는 뜻이다. 어느 한 숫자만 인용하면 과대평가나 과소평가 가운데 하나에 빠진다. 더 큰 문제는 기계 안에 있다. 러시아산 공작기계조차 두뇌인 CNC 제어장치와 회전축(스핀들)을 수입하고, 레이저 가공기 수입품의 97%는 중국산이다.

3-5. 로봇: 1만 명당 29대

2025년 말 러시아 공장의 산업용 로봇은 2만 1,857대였다. 한 해 2,100대가 늘었지만, 로봇 밀도는 산업 종사자 1만 명당 29대에서 제자리였고, 러시아가 직접 만든 로봇은 414대에 그쳤다. 2030년 목표인 145대에 가려면 다섯 배를 늘려야 하는데, 로봇 연방 프로젝트 예산은 2025년 10월까지 연간 한도의 9.6%만 집행됐다.[16] 한국은 1만 명당 1,220대로 세계 1위이고 세계 평균은 132대다.[17] 단순 비교로도 한국 공장의 로봇 밀도는 러시아의 약 42배다.

3-6. 반도체 장비: 350나노의 의미

젤레노그라드 나노기술센터는 벨라루스 기업과 함께 개발한 350나노급 노광장비의 첫 양산기를 2026년 12월 인도할 계획이다. 130나노급 시제품은 2026년 8월 공개됐고, 2027년 양산이 목표다.[18] 350나노는 세계 최첨단 기준으로 1990년대 중반 수준이다. 하지만 전력반도체와 센서, 산업용 제어 칩 상당수는 이런 성숙 공정으로도 만든다. 러시아가 노리는 것은 최첨단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공급이다. 러시아에서 기술 주권의 정의 자체가 경쟁력보다는 생존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정책의 우선순위가 보인다.

4. 보이지 않는 생산설비: 공학 소프트웨어

4-1. 왜 소프트웨어가 생산설비인가

필자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다. 설계·시험·생산·정비가 디지털 데이터로 이어지는 오늘의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는 사무용 도구가 아니라 공작기계만큼 중요한 생산설비다. 2022년 러시아 기업들이 겪은 위험은 프로그램이 하루아침에 멈췄다는 데 있지 않았다. 영구 사용권 제품은 그대로 돌아갔다. 진짜 위험은 보안 보완과 새 기능, 기술지원, 새 설비와의 호환성을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데 있었다. 공장은 멀쩡한데 그 공장의 '두뇌'가 서서히 늙어 가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2022년 말 독일 지멘스의 설계 프로그램 NX와 데이터 관리 시

> “주요 국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사 8곳의 2024년 매출은 2021년 대비 세 배 더 늘었다. 서방 기업이 비운 자리를 국내 기업이 상당 부분 채웠다는 뜻”

스템 팀센터 등을 콕 집어 대체 대상으로 정하고, 2030년 산업용 소프트웨어 국산 비중 90%를 목표로 내걸었다.[19]

제품 하나가 공장을 나서기까지는 대체로 네 단계를 거친다. 모양을 그리고(설계), 그 모양이 실제 환경을 견딜지 계산하고(해석), 기계가 알아듣는 작업 지시로 바꾸고(가공), 이 모든 정보를 수정 이력과 함께 한곳에서 관리한다(관리). 단계마다 전문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설계·해석·가공·관리 소프트웨어라 부른다.

종류	기능	터빈 날개 제작에서의 용례
설계 소프트웨어 CAD (Computer-Aided Design)	제품 모양 및 도면 작성	날개의 곡면과 치수 설계
해석 소프트웨어 CAE (Computer-Aided Engineering)	제품이 실제 환경을 견딜지 컴퓨터로 사전 실험	고온·압력·진동 속 강도와 냉각 성능 계산
가공 소프트웨어 CAM (Computer-Aided Manufacturing)	설계도를 공작기계의 작업 지시로 변경	공구가 지나갈 경로와 절삭 속도 결정
관리 소프트웨어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도면·부품·수정 이력을 제품 수명 내내 한곳에서 관리	시험 후 바뀐 설계를 생산 현장에 즉시 반영

시장 규모는 2022년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압축해 보여준다. 러시아 공학 소프트웨어 시장은 2021년 650억 루블에서 2023년 410억 루블까지 쪼그라들었다가 2025년 500~550억 루블로 회복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쟁 발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 주요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사 8곳의 매출은 2024년 약 150억 루블로 2021년 대비 세 배 더 늘었다.[20] 시장은 줄었는데 국내 기업 매출은 세 배가 됐다. 서방 기업이 비운 자리를 국내 기업이 상당 부분 채웠다는 뜻이다.

4-2. 네 분야의 엇갈린 성적표

가장 앞선 것은 설계다. 1989년 설립된 아스콘의 KOMPAS-3D를 비롯한 국산 설계 프로그램이 펌프나 공작기계처럼 부품 수백~수천 개 규모의 일반 기계 설계를 상당 부분 감당한다. 빈

자리는 맨 꼭대기에 있다. 비행기 동체나 배 한 척처럼 수십만 개 부품을 하나의 거대한 3차원 모델로 다루는 '헤비급' 설계에는 프랑스 다쏘시스템의 CATIA나 지멘스의 NX가 쓰여 왔는데, 이에 상응하는 러시아산 제품은 아직 없다. 국영 조선 그룹이 이런 조선용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지만, 개발 참여 업체는 완성 시점을 2028년까지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21]

가장 어렵고 느린 것은 해석이다. 해석 소프트웨어는 제품이 뜨거운 가스와 압력, 진동을 견딜지 컴퓨터 안에서 미리 실험하는 도구이고, 수십 년간 실험 데이터로 다듬은 계산 방식이 곧 경쟁력이다. 러시아에도 1991년 러시아 학술원 산하 연구소에서 출발한 유체 해석 프로그램 FlowVision 같은 토대가 있지만, 세계 1위인 미국 안시스 제품에서 러시아산으로 갈아타는 데는 평균 1년 반쯤 걸린다는 추산이 있다. 2025년에도 러시아 전자 기업의 61%가 외국산 해석 소프트웨어를 썼다.[22]

가공은 러시아가 일찍부터 실력을 쌓은 분야다. 1994년 설립된 ADEM 같은 국산 제품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깎는 고난도 5축 가공까지 지원하고,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른 공작기계의 명령어 '사투리'로 작업 지시를 번역해 주는 모듈도 약 300종 갖췄다.[23] 하지만 그 지시서를 최종적으로 읽는 것은 공작기계의 CNC 제어장치이고, 그 제어장치는 대부분 수입품이다. 가공 소프트웨어의 자립은 공작기계의 자립과 따로 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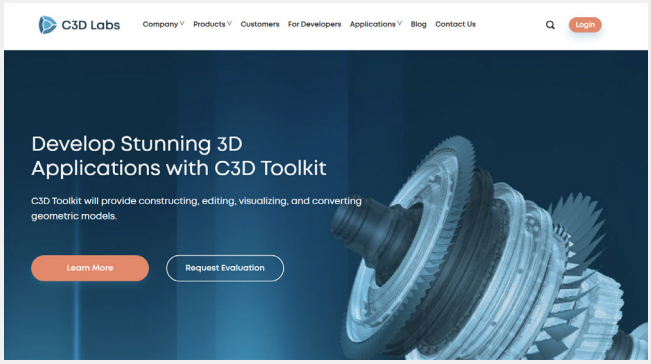
관리 소프트웨어에서는 프로그램보다는 '이사'가 문제다. 아스콘의 LOTSMAN:PLM 같은 국산 대안은 있지만, 수십 년간 외국 시스템에 쌓인 도면과 업무 절차를 옮기는 일은 만만치 않다. 2025년 6월 러시아 최대 산업 디지털화 콘퍼런스에서 원자력공사 로사톰의 IT 자회사는 5,000명 이상 사용자를 러시아산 시스템으로 옮기며 '쉽지 않았다'라고 털어놓았고, 복잡한 공학 프로그램을 공장 사정에 맞게 고쳐 설치해 줄 전문 업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24] 정리하면 일상적인 기계 설계와 가공은 국산이 중심에 섰고, 관리는 데이터 이전이 병목이며, 해석과 초대형 설계는 가장 뒤처져 있다.

4-3. 기하학적 커널: 네 분야 아래의 공통 엔진

이제 필자의 회사 이야기를 조금 하겠다. 기하학적 커널은 설계·해석·가공·관리와 나란히 놓이는 다섯 번째 프로그램이 아니다. 차원이 다르다. 사용자가 직접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자기 프로그램 안에 넣어 쓰는 수학 부품이다. 화면에서 둥근 면을 그리거나 두 입체를 합칠 때, 그 뒤에서 정밀한 3차원 형상을 계산하는 엔진이 커널이다. 설계 프로그램은 심장 그 자체이고, 가공 프로그램은 커널이 계산한 형상 위에서 공구의 길을 짠다. 해석 프로그램은 커널이 만든 형상을 넘겨받아 잘게 쪼개 계산하고, 관리 시스템은 3차원 모델을 보여주거나 변환할 때 커널을 쓴다. 커널은 설계·가공에는 직접적으로, 해석·관리에는 간접적으로 깔린 공통의 바닥층이다. 세계 상용 설계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지멘스의 Parasolid나 다쏘시스템 계열의 ACIS 같은 소수의 커널 위에서 돌아간다.

러시아에서 이 일을 해 온 것이 필자가 이끄는 C3D Labs다. 아스콘의 커널 개발은 1995년 시작됐고, 2012년 수학 부문이 독립해 C3D Labs가 됐다. KOMPAS-3D도 이 커널의 수학을 바탕으로 하고, 국산 가공 프로그램 ADEM의 KOMPAS-3D용 버전도 C3D 위에서 돌아간다.[25]

현재 C3D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약 70개 기업의 제품에 들어가 있다. 커널이 중요한 이유는 통제권이다. 브랜드가 러시아 것이라도 핵심 계산 엔진을 외국에서 빌려 쓴다면 업데이트가 끊기는 순간 손쓸 방법이 없다. 반대로 원천 알고리즘과 개발자를 가진 나라는 기술을 고치고,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있다. 간판만 바꾼 국산화와 뿌리부터의 국산화가 갈리는 곳이 바로 이 바닥층이다.



C3D Labs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 C3D Labs 홈페이지

4-4. 현장 검증: 항공엔진 설계에 들어간 국산 소프트웨어

국산 공학 소프트웨어의 실력은 가장 까다로운 현장에서 드러난다. 정부는 2022년 로드맵에서 엔진 설계사 ODK-아비아드비가텔이 2026년까지 국산 설계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2025년 6월 이 회사는 KOMPAS-3D의 복합재 설계 모듈로 PD-14 엔진의 복합재 부품 시제품을 만들었고, 11월에는 차세대 엔진을 국산 설계·관리 시스템에서 전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3월에는 PD-8 엔진 덮개(나셀) 부품의 설계와 생산에 이 모듈을 처음 양산 적용했고, 연말까지 3차원 설계 작업을 국산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옮길 계획이다.[26] 물론 이것이 엔진의 열·흐름 해석이나 가공 지시서까지 모두 국산화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제품 제작과 인증 엔진의 대량생산도 다른 차원의 일이다. 그래도 국산 소프트웨어가 안전과 정밀도가 가장 엄격한 항공엔진 설계 현장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크다. 앞으로 지켜볼 것은 사용 기업 수가 아니라 양산 적용 범위, 설계 변경에 걸리는 시간, 불량률, 기존 데이터와의 호환성이다.

5. 제조업 기술 주권의 네 가지 구조적 한계

여섯 개 현장과 공학 소프트웨어를 함께 살펴보면 러시아 기계 제조업이 넘어야 할 벽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생산수단을 여전히 바깥에 의존한다. 2025년에도 기계·장비·운송수단은 러시아 최대 수입 품목군(1,356억 달러)이었고, 중국이 약 36%를 차지했다.[27] 공급자가 서방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 생산수단을 쥐지 못한 구조는 그대로다. 둘째, 숫자상의 국산화와 실제 통제력 사이에 간극이 있다. 중국 설계의 현지 조립이 국산 비중을 끌어올리고, 소프트웨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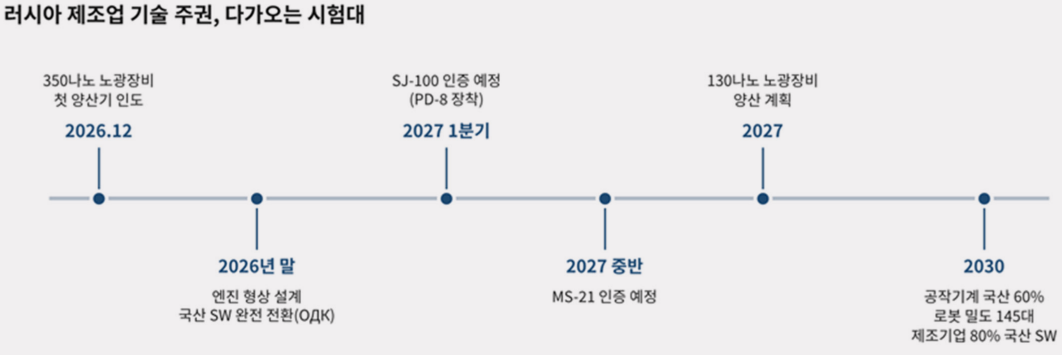
> “러시아 제조 기술 주권의 한계는 제조 수단과 실제 통제력은 여전히 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자본과 인력이 부족하고, 국방과 정부 보호막에 의존한다는 점”

률'은 실제 업무를 얼마나 감당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셋째, 돈과 사람이 부족하다. 금리가 높아 기업들은 IT와 설비 투자부터 줄이고, 실업률은 2026년 5월 2.1%로 역사적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2032년까지 산업 인력이 150만 명 이상 더 필요하다고 본다.[28] 새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익힐 사람이 없으면 국산화는 생산성 하락으로 돌아온다. 넷째, 수요가 국방과 보호된 내수에 쏠려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비용보다 안정적 조달이 더 먼저지만, 민간과 수출 시장에서는 가격과 품질, 사후지원이 승부를 가른다. 보호막 안에서 자란 기술이 바깥에서도 선택받기 전까지 기술 주권은 산업 경쟁력이 아니라 방어 능력에 머문다.

6. 전망: 2027년이 분기점이다

정책 목표보다는 정직한 성적표가 다가오는 이정표들이다. 첫 시험은 2026년 12월이다. 350나노 노광장비의 첫 양산기가 인도되면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가 '0에서 1'로 넘어가고, 같은 시기 엔진 설계사가 3차원 설계를 국산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옮기면 국산 공학 소프트웨어가 최고 난도의 현장에서 일상 업무를 감당한다는 첫 증거가 된다. 2027년은 분수령이 되는 해다. 1분기 SJ-100, 중반 MS-21의 인증은 수천 개의 국산 부품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능력에 대한 판정이고, 130나노 노광장비 양산도 이 해에 예정돼 있다. 마지막 관문은 2030년이다. 공작기계 국산 점유율 60%, 로봇 밀도 145대, 제조기업 80%의 국산 소프트웨어 전환이라는 국가 목표의 달성 여부가 그때 드러난다. 지금의 출발점을 고려하면 공작기계는 두 배, 로봇은 다섯 배를 4년 남짓 만에 이뤄야 한다.

[그림 2] 러시아 제조업 기술 주권의 주요 이정표(2026년 12월~2030년)



자료: 러시아 항공청·산업통상부·ZNTTS-ODK 발표(2026년 11월 기준) / RIO 정리

필자는 세 갈래 길을 본다. 국방·전략산업 중심으로 자립하되 민수 경쟁력은 정체하는 '방어적 자립', 서방 기술을 중국 기술로 바꿔 끼우는 '중국 의존형 국산화', 그리고 공학 소프트웨어나 원자력처럼 역사적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하는 '선택적 경쟁력'이다. 지금의 숫자는 앞의 두 길이 섞인 모습에 가깝다. 세 번째 길이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 곳이 공학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 “기계와 부품을 주고받는 협력은
> 당분간 문이 닫혀 있어 공학 소프트웨어가
> 가장 현실적인 통로”

7. 한국과의 협력: 지금 할 일과 제재 이후에 할 일

현실부터 보자. 한·러 교역액은 2022년 211억 달러에서 2025년 109억 달러로 반 토막이 났고, 한국의 대러 수출은 2021년 약 100억 달러에서 2024년 45억 달러로 줄었다. 한국의 대러 수출 통제 품목은 1,431개에 이르지만, 조사 대상 한국 기업의 79%는 여전히 러시아 시장 재진출 의향을 밝혔다.[29] 그사이 한국 기업이 비운 자리는 중국 기업이 채웠다.

기계와 부품을 주고받는 협력은 당분간 문이 거의 닫혀 있다. 필자는 그래서 공학 소프트웨어가 가장 현실적인 통로라고 생각한다. 화물이 국경을 넘을 필요가 없고, 협력의 대상이 상품보다 알고리즘과 지식에 더 가깝다. 무엇보다 두 나라의 강점이 정확히 맞물린다. 러시아에는 커널과 해석 계산 같은 ‘보이지 않는 수학’의 축적이 있고, 한국에는 조선·자동차·반도체의 거대한 양산 현장,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를 단련시킬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용자가 있다. 실제로 C3D의 고객 가운데에는 한국의 가공 소프트웨어 개발사도 있다. 한국에도 이유가 있다. 한국 제조업의 설계·해석 소프트웨어와 그 커널은 상당 부분 소수 세계적 기업의 제품에 기대고 있다. 2022년 러시아 기업들이 겪은 ‘업데이트가 끊기는 위험’은 지정학 환경이 바뀌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물론 협력은 각국의 제재와 수출 통제 안에서만 가능하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설계·가공·관리 소프트웨어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을 막고 있으므로, 서방 소프트웨어가 러시아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협력은 있을 수 없다.[30] 거래 상대가 제재 명단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출발점이다. 공학 소프트웨어 밖에서도 기계 제조업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러시아와 같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관세 공간에 속한 카자흐스탄에서 기아자동차는 2025년 연간 7만 대 규모의 조립공장을 준공했고, 카자흐스탄의 승용차 생산은 2026년 1~9월 38% 늘었다.[31] 이곳에서 쌓는 부품 현지화 경험은 러시아의 까다로운 국산화 요구에 대비하는 예행연습이 될 수 있다. 다만 생산품이 러시아로 다시 흘러가지 않도록 최종 사용자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전제다. 이미 러시아에 팔린 한국 차의 보증수리와 고객 서비스, 제재 대상이 아닌 금속 소재의 조달도 허용 범위 안에서 이어갈 수 있는 끈이다.

협력은 시간표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 제재가 유지되는 지금은 거래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다. 기하 모델링과 수치 해석, 설계 데이터 교환 표준 같은 주제의 공개 학술 협력, 같은 설계 문제를 놓고 여러 소프트웨어의 정확도와 속도를 비교하는 공동 연구가 가능하다. 휴전이나 부분적 제재 완화가 이뤄지면 공학 소프트웨어가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이다. 제재 대상이 아닌 개발사와의 기술 라이선스, 한국 현장에 맞춘 공동 개발이 이 단계의 의제다. 공장도 화물도 필요 없으니, 장비나 완성품보다 훨씬 더 빨리 재개될 수 있다. 본격적인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비로

소 자동차와 부품, 로봇, 공작기계의 협력이 가능해진다. 다만 그 문은 예전 모습으로 열리지 않는다. 신차의 80%를 국산으로 채우겠다는 러시아에서는 완성차 수출보다는 현지 생산과 부품 합작이 해답이고, 2030년까지 산업용 로봇을 8만 대 이상 더 들여야 하는 러시아의 자동화 수요가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 쌓은 소프트웨어 협력과 사람의 연결이 그때의 진입 비용을 낮춰줄 것이다.

맺으며: 진짜 시험대는 '대체' 이후다

러시아 기계 제조업의 기술 주권을 성공이나 실패라는 한 단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설계 소프트웨어에서는 오랜 수학과 공학의 토대를 살려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았고, 항공엔진처럼 가장 어려운 현장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PD-8 인증은 그 상징이다. 반면 공작기계와 로봇, 반도체 장비, 대형 시스템 통합, 민간 시장 경쟁력에서는 뚜렷한 병목이 남아 있고, 그 빈자리 일부는 중국이 채우고 있다. 이제 질문은 '서방 제품을 무엇으로 바꿨는가'에서 '바꾼 기술로 얼마나 좋은 제품을 꾸준히 만들고, 계속 고치고, 바깥 시장에도 팔 수 있는가'로 옮겨 가고 있다. 필자는 그 답이 가장 먼저 나올 곳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설비, 공학 소프트웨어라고 믿는다.

---

1 Fontanka(2026.6.5). https://www.fontanka.ru/2026/06/05/76462511/; 인증 일정 변경·제한 수명. https://vnesenie-v-reestr.ru/news/minpromtorg-o-lokalizatsii-v-aviadvigatelestroenii-novye-materialy-reestr-rossiyskoy-produktsii-i-goszakupki; 25개 핵심기술. https://techora.ru/news/odk-zavershila-ispytaniya-dvigatelya-pd-8-2026-05-28

2 TASS(야드로프 항공청장, 2026.9.10). https://fomag.ru/news-streem/glava-rosaviatsii-soobshchil-o-srokakh-sertifikatsii-samoletov-sj-100-i-ms-21/; 체메조프 발언·원 계획·항속거리(2026.5.7) https://finance.rambler.ru/business/56414184-sertifikatsiyu-samoleta-ms-21-perenesli/

3 러시아 정부, 국가 프로젝트 '생산수단과 자동화' 개관. https://crp.gov.ru/news/natsproekt-sredstva-proizvodstva-i-avtomatizatsii-o-chem-on/

4 러시아 정부명령 제378-p호(2026.2.26). https://pravo.ppt.ru/rasporyazheniye/328199

5 러시아 정부명령 제2267-p호(2026.8.24) 자동차산업 발전 전략 2035. https://pravo.ppt.ru/rasporyazheniye/352675; https://www.tks.ru/autonews/2026/09/01/0001/pravitelstvo-obnovilo-strategiyu-razvitiya-avtoproma-do-2035-goda/

6 알리하노프 산업통상부 장관 발언(2026.9). https://investfuture.ru/articles/chislo-stankostroitelnykh-predpriyatiy-v-rossii-za-pyat-let-vyroslo-v-chetyre-raza-37954658; https://360.ru/news/moskva/forum-den-zakazchika-proshel-v-moskve/

7 Reuters/Moscow Times. 러시아 통계청 2026년 9월 산업 생산(2026.10.28). https://ru.themoscowtimes.com/2026/10/28/promproizvodstvo-v-rf-vernulos-k-rostu-v-sentyabre-blagodarya-voennomu-proizvodstvu-a209921

8 러시아 통계청 2025년 1~6월 업종별 산업 생산(NormaCS 전재). https://www.normacs.info/news/77278

9 Heli Simola. "Revisiting Russian war-time import substitution." BOFIT Policy Brief 4/2026. https://publications.bof.fi/handle/10024/54441

10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2026.10.23). https://rulaws.ru/acts/Informatsiya-Banka-Rossii-ot-23.10.2026/

11 2022년 이전 판매 상위 브랜드(Expert). https://expert.ru/ru/avto/rossiyskiy-avtorynok-perezhil-globalnuyu-transformatsiyu; 중국 브랜드 현지조립 54%. https://auto.ru/mag/article/bolshe-poloviny-prodannyh-v-rossii-kitaycev-sobrali-vnutri-strany/; 1분기 68.7%(Fontanka) https://www.fontanka.ru/2026/04/22/76378850/; 테넷(Rossiyskaya Gazeta). https://rg.ru/2026/06/02/reg-cfo/vygodnaia-propiska.html

12 러시아 통계청 2025년 승용차 생산(Interfax). https://interfax.com/newsroom/top-stories/118906/; 2026년 1~9월(Reuters/Moscow Times). https://ru.themoscowtimes.com/2026/10/28/proizvodstvo-legkovykh-avtomobiley-v-rf-v-sentyabre-vyroslo-na-353-gg-rosstat-a209911

13 경향신문(Reuters 인용, 2026.2.2). https://www.khan.co.kr/en/article/202602021539037; Just Auto https://www.just-auto.com/newsletters/hyundai-buy-back-russian-plant

14 SberPro(스탄코인스트루멘트 협회·ATK+ 자료). https://sber.pro/publication/sdelano-v-rossii-kto-i-kak-zamenyaet-import-v-stankostroenii; BusinesStat 레이저 가공기 시장(2026.3). https://marketing.rbc.ru/articles/16450/

15 산업통상부 명령 제5995호(2024.12.18) 러시아산 공작기계 제품 비중 산정 방법. https://pravo.ppt.ru/prikaz/minpromtorg/n-5995-315320

16 산업통상부 로봇 통계(Inc. Russia). https://incrussia.ru/news/dorogo-i-nekomu-vnedryat-chto-tormozit-robotizatsiyu-rossijskih-zavodov/; 국산 로봇·2030 목표. https://www1.ru/news/2026/07/01/zabuksovali-plotnost-robotizacii-v-rossii-sostavila-29-promyslennyx-robotov-na-10-tysiac-sotrudnikov-a-nuzno-145.amp.html; 예산 집행률. https://investfuture.ru/articles/plotnost-robotizatsii-v-rossii-vyrosla-na-36-no-tsel-na-2030-god-pod-ugrozoy; 8만 대 추가 필요. https://finance.mail.ru/article/robotam-ne-hvataet-rabotyi-69224389/

17 IFR, World Robotics 2025(2026.4.8). https://ifr.org/ifr-press-releases/news/robot-density-surges-in-europe-asia-and-americas

18 350나노 양산기·130나노 시제품(2026.9.12). https://trashbox.ru/link/2026-09-12-rossijskij-litograf; 3HT나·플라나르 공동개발(CNews). https://zoom.cnews.ru/news/item/657906

19 2022년 산업용 SW 국산화 로드맵(Moscow Times, 2022.12.20). https://ru.themoscowtimes.com/2022/12/20/pravitelstvo-potrebovalo-ot-razrabotchikov-sozdat-2300-novih-programm-dlya-promishlennosti-a29059

20 ComNews, 2025년 공학 SW 시장(2026.1.29). https://www.comnews.ru/digital-economy/content/243505/2026-01-29/2026-w05/1012/importozameschenie-i-cifrovizaciya-obespechili-rost-rynka-inzhenernogo-softa; 2021~2023년 시장(CNews). https://zoom.cnews.ru/news/item/618004; 주요 개발사 8곳 매출(ComNews, 2025.4.22). https://www.comnews.ru/content/238908/2025-04-22/2025-w17/1007/vyruchka-krupneyshikh-razrabotchikov-sapr-sostavila-pochti-15-mlrd-rub-2024-g

21 ОСК 조선용 설계 프로그램(CNews, 2025.7). https://zoom.cnews.ru/news/item/650052; ЦИПР-2025 토론(NormaCS). https://www.normacs.info/articles/1155

22 FlowVision(테시스 발표자료). https://webstore.rcc.msu.ru/2024/05/07/Aksenov_07_05_2024.pdf; ANSYS 전환 기간(ComNews). https://www.comnews.ru/content/218110/2021-12-24/2021-w51/rosatom-delaet-vazhnyy-shag-k-sozdaniyu-sistemy-integracii-rossiyskikh-cae-transformiruya-logos-produkta-platformu; 전자기업 외국산 해석 SW 61%(Kommersant) https://kommersant.ru/doc/8271583

23 ADEM 제품 정보(포스트프로세서, C3D 기반 КОМПАС-3D용 버전). https://toolfox.ru/services/s/adem

24 NormaCS. ‘ЦИПР-2025: 국산 공학 SW 전환의 어려움’(2025.7.28). https://www.normacs.info/articles/1155

25 C3D Labs 분리(2012) https://habr.com/company/ascon/blog/335110; C3D Labs 회사 소개. https://habr.com/en/users/c3dlabs/

26 www1.ru(2025.6.3). https://www1.ru/news/2025/06/03/razrabotku-detalei-dlia-aviadvigatelia-pd-14-uskoriaet-rossiiskoe-po-kompas-kompozity.html; (2025.11.15). https://www1.ru/news/2025/11/15/konstruktorov-dvigatelei-pd-8-i-pd-14-nacnut-gotovit-na-rossiiskix-sistemax.html; (2026.3.20). https://www1.ru/en/news/2026/03/20/odk-vpervye-sozdala-elementy-pd-14-i-pd-8-s-pomoshhiu-rossiiskogo-po.html

27 러시아 연방관세청 2025년 무역(Xinhua 전재). https://www.thestar.com.my/news/world/2026/02/11/russia039s-foreign-trade-surplus-down-817-pct-in-2025; 가이다르연구소 https://www.iep.ru/files/RePEc/gai/mreoen/mreoen-2026-3-1492.pdf

28 러시아 통계청 2026년 5월 실업률(Moscow Times). https://ru.themoscowtimes.com/2026/07/01/bezrabotitsa-v-rf-v-mae-26g-chut-snizilas-do-21-a199747; 산업 인력 수요 추산. https://www.v2b.ru/articles/kadrovyy-golod-v-2026-godu-kak-rukovoditelu-preodolet-defitsit/

29 TASS. 주한 러시아 대사 인터뷰. https://tass.com/economy/2113879;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아시아경제, 2025.8.11). https://www.asiae.co.kr/en/article/2025081115591070703

30 아스콘 제재. https://en.wikipedia.org/wiki/ASCON; C3D Labs(우크라이나 NSDC 명단). https://www.opensanctions.org/entities/NK-F5orFs9skB3VAjmMgBWA2U; EU 설계·생산 SW 제공 금지. https://www.cooley.com/news/insight/2024/2024-02-05-uk-eu-adopt-further-sanctions-against-russia; 미국 2024년 6월 조치. https://mondaq.com/russianfederation/ip/1511336/ofac-state-department-and-bis-expand-russianbelarusian-sanctions

31 기아 카자흐스탄 공장 준공(뉴스토마토, 2025.10.21).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8514; 카자흐스탄 국가통계국 https://stat.gov.kz/ru/news/v-kazakhstane-uvelichilsya-vypusk-legkovykh-avtomobiley/

한국의 북극항로 정책
기원·현황·전망[1]

정지훈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KoARC) 사무총장

2026년 10월 11일, 2,758TEU급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Panstar Acro) 호가 부산항에 입항했다. 8월 22일 부산에서 출발해 북극해를 지나 영국 펠릭스토, 네덜란드 로테르담, 폴란드 그단스크에 차례로 기항한 뒤 50일 만에 돌아온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적 선사의 선박이 북동항로(Northeast Passage)를 운항한 것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며, 컨테이너선으로는 첫 사례이다. 같은 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계획, 즉 9월까지 부산에서 북동항로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컨테이너선 시범 운항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 대체로 예정대로 실현된 셈이다. 이번 항해를 통해 북극항로에 거는 경제적 기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면 유럽까지 통상 30~34일이 걸리지만, 아크로 호는 7,000km가량 짧은 북극항로를 택해 약 22일 만에 로테르담에 도착했다.[2] 실제 수출 화물을 싣고 갔다는 사실 역시 상징적이었다.

> “10월 11일 팬스타 아크로 호가 부산항에 귀항하면서 부산과 유럽을 북동항로로 잇는 컨테이너선 시범 운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10월 13일 북극항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팬스타 아크로 호를 환영하는 이재명 대통령 ⓒ 청와대 웹사이트

하지만 이번 운항은 또 다른 과제를 함께 드러냈다. 시범 운항 공모에는 중견 선사인 팬스타 한 곳만 응모해 업계의 호응이 저조했다. 실린 화물 737TEU도 선박 적재 능력의 4분의 1 남짓에 그쳤다. 게다가 북극 해역에서 요구되는 선박용 경유로 연료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 탓에 연료 절감 효과도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3] 대러 관계의 민감성도 부담이었다. 러시아의 허가와 협력에 기댄 이번 항행에 일부 서방 외교관이 우려를 표했다는 보도가 대표적이다. 해양수산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번 항행이 제재 대상 기관의 쇄빙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항로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러시아의 협력이 불가피했다고 따로 설명했을 정도다.[4]

이처럼 아크로 호의 성공적인 북극 항행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불러일으키며 국내외의 이목을 끌었다. 북극항로의 미래에 대해 섣불리 평가하기에 앞서 이 사안이 추진된 맥락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번 시범 운항은 어떤 배경에서 추진됐는가? 이 질문을 통해 한국의 북극항로 노력이 앞으로 어디를 향하는지, 또 북극 해운에서 한국이 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구상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기원: 오래된 관심, 새로 실린 의지

한국의 북극항로 추진 노력을 이해하려면 먼저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북극항로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짚을 필요가 있다. 2000년 무렵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북극해 연구가 시작된 이래, 한국의 북극 정책은 애초부터 해양 중심의 성격을 띠었다. 실제 북극 정책의 윤곽은 해양수산부가 주도한 일련의 범정부 구상을 거치며 구체화했는데, 2012년 「극지정책 선진화 방안」, 한국이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얻은 2013년의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과 해양수산부 극지정책팀 신설, 그리고 한국 최초의 「북극정책 기본계획」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선박은
> 다섯 차례 시범 운항을 통해 북극해에 진입했으나,
> 정기 운항과 같은 후속 서비스로는 발전하지 못해”

그중 2013년 말 수립된 한국 최초의 「북극정책 기본계획」은 2013~17년 동안 국제 협력, 과학 연구, 북극 관련 비즈니스 개발, 제도 정비에 걸친 31개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경제 부문에서는 북극항로 활용을 전략적 목표로 명시하고 항만 시설 사용료 감면, 선박 유치를 위한 물동량 인센티브 도입, 통항 증가에 대비한 국내 항만 인프라 개선 등을 담은 바 있다.[5] 북극항로 활용이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과 범정부 북극 정책의 출발 단계에서부터 주요 과제로 검토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의 북극해 활용 구상은 실제 항행으로도 이어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선박은 대략 다섯 차례의 시범 운항을 통해 북극해에 진입했다(아래 표 참조).

한국 선사의 북극항로 시범 운항[6]

연도	선사	선종	화물	구간
2013	현대글로비스	유조선(용선)	나프타 4.4만 톤	우스티루가 → 광양
2015	CJ대한통운	중량물선	하역설비 4천 톤	무샤파 → 야말
2016	팬오션(2회)	중량물선	LNG 플랜트 모듈	인도네시아·중국 → 야말 사베타
2016	SLK국보	내빙선(용선)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1,100톤	울산 → 북극항로 → 러시아 내륙수로 → 카자흐스탄
2026	팬스타	컨테이너선 2,758TEU	수출화물 737TEU	부산 → 펠릭스토·로테르담·그단스크 왕복

하지만 당시 시범 운항은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고도 정기 운항 같은 후속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했다. 2018년 제2차 기본계획과 2022년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 등 후속 문서가 북극항로 운항 의제를 계속 다뤘지만, 2017년 이후로 추가 시범 운항은 한동안 진행되지 않았다. 개별 선사와 화주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성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이후 한국의 북극항로 관여는 비교적 잠잠한 상태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아크로 호의 시범 운항이 성사될 만큼 다시 뜨거워진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서 왔을까? 무엇이 10년 가까운 침묵을 깨뜨렸을까?

이 질문에는 흔히 북극항로의 경제성이나 북극의 자연환경 변화가 답으로 지목된다. 기후변화로 해빙(海氷)이 줄어 항행이 수월해지고 북극권 국가들의 지역 개발 의지가 커지면서,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보다 거리와 시간을 더 크게 줄일 수 있는 북극항로의 경제적 잠재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북극의 변화'보다 더 빨랐던 우리 측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내에서 새롭게 출현한 정책적 의지가 북극항로 구상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북극항로 선도를 첫 과제로 내세운 해양수산부의 '남부 해양수도권 추진 전략' ⓒ 해양수산부 웹사이트

필자는 2025년 2월 부산광역시에서 출범한 '북극항로 개척 TF'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상당수가 지역 학계 인사였던 TF 참석자들이 여러 번 쓴 표현이 인상에 남는다. 바로 부산에는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평가였다. 회의장의 공통된 문제의식은 부산에 이제 남은 것은 '노인과 바다'뿐이라는 위기감, 즉 생산가능인구가 도시 바깥으로 빠르게 빠져나가 고령화가 진행되고 지역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전임 시장기에 이뤄진 북극항로 TF 첫 회의의 일화는 지역경제 재생에 대한 강력하고도 초당적인 지역적 요구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북극항로는 단순히 새로운 잠재 해운 수요의 기회라기보다는 국가적 관심과 중앙정부의 투자를 부산과 동남권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전략적 서사로서 느껴졌다.

한편, 2025년이라는 시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당시는 2024년 12월의 위법한 비상계엄 시도가 실패하고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찾아온 과도기였다. 2025년 6월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부산에서는 두 가지 구호가 이례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 바로 북극항로 활용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었다. 두 구호는 모두 이 지역이 지적해 온 오랜 결핍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담고 있었다. 요컨대 부산과 동남권에서 북극항로란 중앙정부의 지속적 해양산업 투자 촉진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반영한 개념이었다. 이후 이재명 후보의 부산 선거운동을 이끌었던 국회의원은 새 정부 출범 뒤 첫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됐고,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TF 설치를 포함하여 북극항로 정책에 추진 동력을 불어넣었다.

> "북극항로는 단순히 새로운 잠재 해운 수요의 기회를 넘어, 부산과 동남권이 국가적 관심과 중앙정부의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 전략적 서사로 느껴져"

그 결과는 실로 새로운 것이었다.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 강국 건설'이 2025년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새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56번 과제로 명시된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우선순위 과제 목록에 북극이라는 키워드가 전면 등장한 첫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본부의 부산 이전이 추진됐고, 해양수산부 안에는 북극항로 의제를 전담하는 최초의 상설 조직인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신설됐다.[7]

정책 현황: 내부를 향한 시선, 아직 작성 중인 정책

이처럼 부산과 동남권의 시각에서 출발하면 한국에서 북극항로 정책 의제가 급부상한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흔히 우리는 다른 나라의 북극 정책을 중앙정부의 사전 조율과 검토를 거쳐 도출된 최종 결과물이라고 보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 북극 정책은 복수의 행위자와 제도적 논리, 또 서로 상충하는 우선순위가 맞물리며 만들어져, 중간 산출물로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거듭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현재도 해양수산부와 관계 부처, 지방정부, 산업계, 연구 기관 등 북극과 연관된 국내 행위자들은 정부의 새로운 북극항로 의제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으며, 정책 속도와 세부 방향 역시 여러 고려 사항 속에서 다듬어지는 중이다. 이런 과정은 역설적으로 북극권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덜어주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한국이 북극에 서둘러 뛰어들기보다는 국내 여건부터 다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극권 파트너들에게는 안심할 만한 소식이 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북극항로 정책은 어떻게 '내향적' 성격과 절제된 속도를 띠게 됐을까? 먼저 북극 정책의 내향성을 이해하려면, 의제 자체가 외교적 계산보다는 지역의 정치적 요구로 촉발됐음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국내 역량 구축이 우선시된다. 예컨대 결빙 해역 항해사 양성, 항행 안전과 운행의 북극해 환경 영향 저감을 돕는 과학기술 심화, 친환경 벙커링, 선박 수리와 기자재 공급, 선박 금융과 보험 등 정부 측 사업 계획은 당장 얼음 사이로 물동량을 실어 보내려는 시도와는 거리가 멀다. 그보다는 북극 운항의 전제조건을 갖추기 위해 5~10년간 진행될 국내 차원 준비에 가깝다. 정책의 틀 자체가 정책 동기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완만한 속도는 한국 관료제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관가에서는 신규 분야 정책을 수립할 때 주관 부처가 다른 부처와의 협력에 나서기보다는 자체 입장을 세부적으로 확립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의 북극항로 정책 마련 작업은 대체로 해양수산부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이 가운데 북극항로 사안의 시작과 끝이 때로는 해양수산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에 있어, 북극항로 정책 이행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항로의 상당 부분은 북극권 연안국의 관할에 속하고, 북극권 거버넌스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일은 외교부가, 조선·에너지 같은 연관 산업과 북극권 국가와의 양자 통상 문제는 산업통산부가 맡는다. 북극항로 정책이 북극권에 대외 조치가 필요한 단계로 넘어가려면 관련 부처 간 조정이 필수적이다. 2026년 10월 기준 한국과 북극권 국가 정상 간 회담에서 북극항로가 의제로 오른 적은 없었는데, 이는 현재 진전이 이들 부처 간 조정 전 단계임을 시사한다.

다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역시 '경제성'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북극항로 의제를 움직인 것은 상업적 이점이나 경제적 유인이 아니었다. 사실 북극 해운의 기저 경제성은 10년 전과 비교해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노선이 짧은 만큼 1회 운항, 즉 항차 기준으로는 북극항



러시아 북극해를 지나는 북극항로(파란색)와 수에즈운하를 지나는 기존 아시아–유럽 항로(빨간색) ⓒ 위키피디아

로가 더 저렴할 수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여름철 부산~로테르담 구간의 항차당 비용은 약 300만 달러로, 수에즈 운하 경유(380만 달러)나 희망봉 경유(420만 달러)보다 낮다. 그러나 컨테이너 한 개당 비용으로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북극항로에 투입되는 내빙선은 수에즈 운하를 오가는 초대형선보다 훨씬 더 작아, 2025년 KMI 학술지에 실린 추정으로는 TEU당 비용이 55%가량 더 높다. 게다가 북극항로가 수에즈 운하와 경쟁할 수 있는 기간은 짧은 여름철에 그친다는 것 역시 국제 연구자들이 내린 대체적인 결론이다.[8] 이런 이유로 주요 글로벌 선사들은 환경적 제약과 경제적 한계를 들어 이 항로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9]

지금까지 논의했듯 정부의 북극항로 시간표가 길게 잡혀 있고 경제성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팬스타 아크로 호의 시범 운항은 어떻게 이토록 빨리 성사될 수 있었을까? 왜 연초에 시범 운항 계획이 발표됐고, 왜 발표 당해인 2026년 하계를 목표로 삼았을까? 공식적인 설명은 없지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정에서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애초 해양수산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말에야 부산 이전을 마치겠다고 보고했다가, 새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였던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날 선 비판을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이후에 파격적으로 압축한 일정 계획을 다시 보고했고, 실제로 2026년 업무 연도가 시작되기 직전인 2025년 말 청사 이전을 마쳤다.[10] 같은 맥락에서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리듬이 존재했고, 이것이 시범 운항 시점을 정하는 데도 작용했다고 보는 설명이 설득력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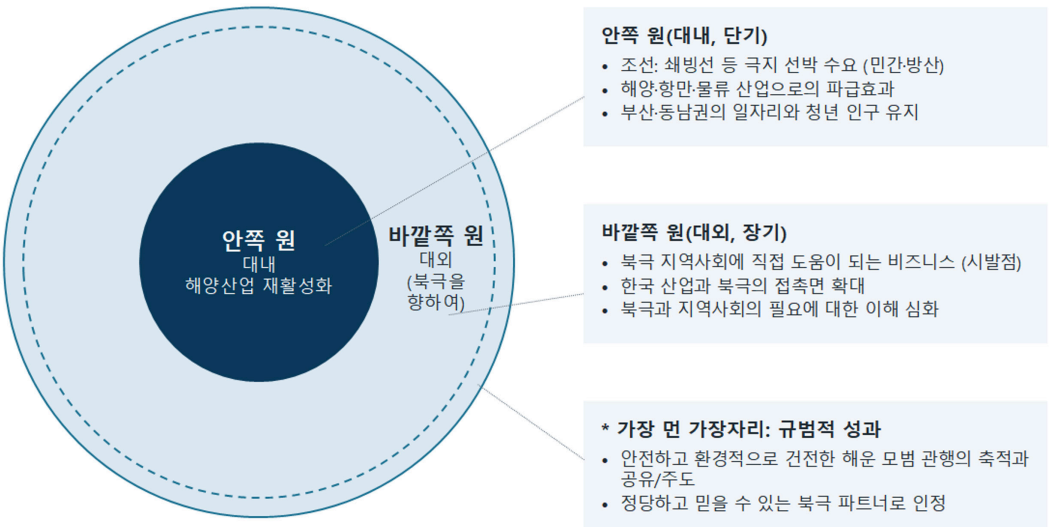
한국의 기대지평: 대내외 두 개의 동심원

국가 차원에서 한국이 북극항로로 거둘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일까? 실마리는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 강국 건설'에 있다. 이 과제는 해양 강국 건설, 부산의 세계 최상위 거점 항만 도약, 국가 해상 운송 역량 확충, 차세대 쇄빙선과 자율 운항 선박 건조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은 '국가 해상 운송 역량 확충'이다. 이는 추상적인 구호를 넘어 우리 경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산업국 가운데 하나다. 예를 들어 2024년 국내총생산(GDP) 중 약 44%가 수출에서 나왔을 만큼, 경제 규모의 절반가량을 외국 시장에 기대고 있다. 게다가 북쪽으로는 휴전선에 막혀 육로로 대륙과 이어지지 못하는 사실상 섬나라인 탓에, 한국은 교역량의 약 99.7%를 바닷길에 의존하고 있다.[11] 경제 전반이 이 정도로 해상 물류에 크게 노출된 나라가 항로 다변화에 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최근 몇 년간 중동의 두 해상 초크포인트(Choke

Point, 조임목)인 바브엘만뎁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반복적인 긴장 등 주요 항로에서 이어진 교란 역시 중요했다. 물류 충격이 대체 항로 물색을 더 절실한 과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중동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한국의 북극 관여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정책적 근거만큼은 확실히 강화했다.

해상 운송 역량이라는 근원적인 국가전략 외에도 더 구체적인 이득 역시 북극과 함께 따라올 수 있다. 한국 해양산업의 재활성화가 바로 그것으로, 이는 북극항로를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거둘 수 있는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조선 분야가 가장 분명한 사례다. 민간과 방산을 막론하고 북극에서 해양 활동이 늘어나면서, 한국을 포함한 극소수 국가만이 건조할 수 있는 선박의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동맹국들은 향후 10년간 수십 척의 신규 쇄빙선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조선·해양산업의 활기는 해양·항만·물류 등 전후방 산업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북극항로는 간접적으로는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도 있다. 물론 많은 사업 계획이 아직 발표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 지역 일자리와 청년 인구 유지 면에서 나타난 일차적 반응은 이미 고무적이다. 부산 소재 해양 관련 대학과 고등학교 지원자 수가 크게 늘어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6년 10월 종합 해운물류 기업인 HMM의 부산 본사 개소를 비롯해 여러 해운 기업 본사의 부산 이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불과 한두 해 전까지 쇠퇴론이 짙게 깔리던 부산의 과거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는 절대 사소하지 않은 신호다.

[그림] 한국의 북극항로 기대지평: 두 개의 동심원



ⓒ 필자 제작

이처럼 국내에서 거둘 수 있는 실익은 한국 북극 정책의 '안쪽 원'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북극 자체를 향하는 '바깥쪽 원'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바깥쪽 원에서 성과를 내야 안쪽 원의 실익도 온전히 손에 쥘 수 있다. 북극 지역에 직접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는 아마도 그 바깥쪽 원의 출발점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움'은

> “한국은 러시아와 다자 틀에서 항행 안전·해양환경 협력을 이어가고, 전쟁이 끝나고 제재 여건이 달라지면 항만·물류·산업으로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어”

한국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북극 지역사회가 스스로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실 한국의 북극 협력은 30년 가까이 이어져 왔지만, 북극의 시각에서는 다소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진 면이 없지 않았다. 물론 그간의 사업들이 분명한 가치와 의미를 지녔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협력의 중심이 북극 지역사회가 두루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일부 연구와 교육 분야에 한정된 것 역시 사실이다. 북극을 통해 국내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제는 북극 지역사회와 당사자들이 절실히 바라는 수요 중심의 협력 방안을 찾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먼저 한국 산업과 북극 사이의 접촉면을 넓히고 북극과 그 지역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선결돼야 한다. 그 기반 위에 서야 한국 기업들이 북극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장기적 기회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 북극 정책이 러시아를 비켜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극권 인구의 절반가량이 러시아 북극에 거주하고, 북극항로가 지나는 연안 지역사회 역시 대부분 러시아 영토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2년 이전까지 러시아와 북극 협력의 폭을 꾸준히 넓혀 왔다. 극지연구소와 러시아 연구기관 간 과학 협력, 야말 LNG 사업에 투입된 쇄빙 LNG 운반선 15척의 국내 건조, 즈베즈다 조선소와의 기술 협력이 주요 사례들이다. 전쟁과 제재는 이 협력을 사실상 동결시켰고, 조선 분야는 수조 원대 국제 중재로 비화한 상태이다. 향후 러시아와의 협력은 두 층위로 나누어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 단계에서 가능한 것은 다자 틀 안의 공공재 영역이다. 러시아가 당사국으로 남아 있는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의 과학 협력, 국제해사기구(IMO) 극지 운항 규칙의 이행과 개선, 항행 안전과 수색구조, 해양환경 보호와 같이 제재 대상이 아니면서 북극 연안 지역사회의 안전에 직접 닿는 분야가 그것이다. 이들 분야의 협력은 동류 국가[12]의 신뢰를 해치지 않으면서 러시아 측과 최소한의 접촉면을 유지하게 한다. 연안 항만과 지역사회를 상대로 한 사업, 자원 개발 연계 물류, 원주민 공동체의 수요에 기반한 산업 협력 등 더 넓은 협력은 전쟁 종식과 제재 환경 변화를 전제로 하는 다음 층위의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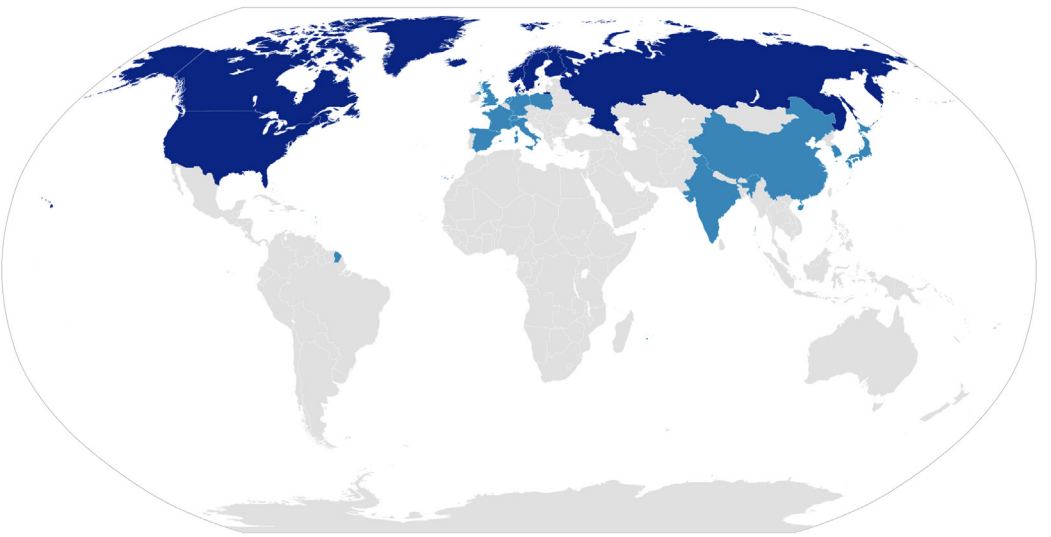
바깥쪽 원의 가장 먼 가장자리에는 규범적 성과가 자리한다. 이는 북극 해운의 기준과 관행을 함께 만들고 지키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얻는 신뢰와 발언권을 뜻한다. 북극항로는 아직 상업 항로가 형성되기 이전 단계에 있으며, 그 기준과 관행은 지금 운항하는 이들의 경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해운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산업이고, 새 항로의 가치는 항로 전체에서 공유되는 기준과 관행, 그리고 이를 통해 얻는 예측 가능성에 있다. 모범적 해운국으로서 한국이 안전하고, 생태계와 연안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사업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운항 경험을 책임 있게 축적해 나간다면, 그 경험은 곧 이 항로의 표준을 형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한국은 동류 국가의 일원으로서 북극 해운 시장을 선도하고, 그 성과는 다른 동류 국가에도 공유된다. 한국이 바라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 북극해에서 정당하고 또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인정받는 것이다.

정책 전망: '건설적 북극 파트너'를 위한 시험대

'북극 예외주의' 시대를 뒤로하고, 오늘날 북극은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균열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북극권 국가들과 러시아가 맞서는 양극화 구도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과 대립이라는 그림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조용한 흐름도 무시할 수 없다. 아시아의 북극 관여를 분석하는 일부 논자는 북극의 기성 강대국들이 자국 내부 문제나 상호 견제에 점점 몰두하면서 오히려 틈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한국과 같은 비국극권 중견국이 북극에서 설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오히려 열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13] 그러나 한국이 이런 구조적 기회를 장기적이고 견고한 전략적 이점으로 바꿔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다.

북극항로 의제를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잘 관리해야 할 대외적 리스크는 신뢰, 그중에서도 북극권에 있는 동류 국가 7개국으로부터 얻는 신뢰다. 비국극권 국가인 한국이 북극에서 펼치는 활동 전반은 과학 협력에서 항로 구상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 국가가 한국의 북극항로 의제에 표명하는 우려에는 정당한 면도 있다. 유럽연합(EU)이 2026년 제20차 제재 패키지에서 러시아 북극권 석유·LNG와 그림자 선단을 겨냥하고, 영국이 같은 해 6월 'Arctic LNG 2' 관련 선박을 추가 제재한 것은 동류 국가들이 북극항로의 교통량 증가 자체를 제재 체제의 약화로 읽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러시아 수역을 지나는 통항을 늘리는 일은 우리 주요 파트너들이 처한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긴장을 투명하게, 또 제재 체제 틀 안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북극이사회 회원국(남색)과 옵서버 국가(청록색) 지도 ⓒ 위키피디아

동시에 인내와 꾸준함 역시 북극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 북극 관련 기관의 장이 지적했듯 "북극에서 사업은 신뢰의 속도로 진행되며, 신뢰는 대화와 포용과 존중을 통해 쌓인다."[14]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 한국의 북극항로 의제는 주로 국내적 요인에서 추진력을 얻어 시작됐고, 일견 절제된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오히려 이에 따라 주효하게도, 북극권 국가들에 위협적이지 않은 형태로 우리 북극 정책이 수용되고 있는 것 같다. 정부 정책 결정자들 역시 성급해서는 안 된다는 북극 사업의 요점을 잘 알고 있다. 부산에서 팬스타 아크로 호 귀항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도 성급한 낙관을 경계하며 '긴 안목에서'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자고 밝힌 바 있다.[15] 9월까지 시범 운항을 진행하겠다던 2026년 1월 해양수산부 발표를 기억하는 북극권 이해관계자라면 최근 발언에 더 안심했을지도 모른다.

북극항로 개척은 단순한 해운 사업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당면한 전략적 시험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긴 안목으로, 투명하게, 북극 파트너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한다면, 북극항로는 한국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임해 온 '건설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입증할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필자는 다른 글에서 이를 존중(Respect)과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두 개의 R로 표현한 바 있다. 존중과 책임은 구호를 넘어 행동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한국은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의 당사국이자 당사국회의 부의장국으로서, 북극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북극 원주민을 권리 보유자이자 지식 보유자로 존중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이런 자세는 과학 파트너로서의 행동 못지않게 항로 이용자로서의 행동에도 일관되게 뿌리내려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10월 11일 완료된 컨테이너선 북극항로 최초 시범 운항은 오히려 작은 이야기다. 더 큰 이야기는 한국이 국내 정치에서 분출한 에너지를 인내심 있고 신뢰할 만한 북극 내 역할로 스스로 전환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

1 이 글은 Jihoon Jeong (2026). "Navigating Korea's Arctic Sea Route Policy: Origins, Status, and Outlook." *The Arctic Institute (TAI) Korea Series* (Forthcoming)을 번역해서 일부 보완한 것이다.

2 중앙일보, 「9월 '부산~로테르담' 북극항로 열린다」, 2026.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62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북극항로 시범 운항 환영 행사 개최」, 2026.10.13.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8989&bbsSeq=10&menuSeq=971

3 Korea JoongAng Daily, "Korea's first Arctic container voyage ends, but the economics are still at sea," 2026.10.14.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business/koreas-first-arctic-container-voyage-ends-but-the-economics-are-still-at-sea/12914103
이투데이, 「북극항로, 뱃길 35% 줄었지만 연료비는 제자리…상용화 조건은」, 2026.10.22.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9071

4 Reuters, "South Korean container ship will test Arctic route to Europe amid Western concern," The Korea Herald 전재, 2026.8.20.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846131
한국경제, 「첫발 뗀 '북극항로' 개척…사업성 확보가 최대 관건」, 2026.10.1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396291

5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정부 최초로 북극권 정책기조 정립할 '기본계획' 나왔다」, 2013.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1521&bbsSeq=10&menuSeq=971

6 홍성원, 「북극항로의 성과와 활성화 전망」, KIMS Periscope 제151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9.
https://kims.or.kr/issubrief/kims-periscope/peri15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북극항로 시범 운항 앞서 국적선사 의견 듣는다」, 2025.10.29.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3602&menuSeq=971&bbsSeq=10

7 국정기획위원회, 「123대 국정과제」(국무회의 확정), 2025.9.16.
https://www.korea.kr/govVision/index.html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 2025.12.23.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4262&bbsSeq=10&menuSeq=971

8 여름철 부산~로테르담 구간의 78,000톤급 선박을 기준으로 한 추정이다.

에너지데일리, 「데이터로 본 북극항로, 경제성과 전략적 중요성 부각」(국회도서관 Data & Law 2025-9 인용), 2025.8.28.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72

북극항로 4,300TEU급 내빙선과 수에즈 경유 2만TEU급 선박의 비교다.

최혜원, 「부산-로테르담 구간의 북극항로와 수에즈 항로 간 컨테이너선 TEU당 운송 비용 분석」, 『해양정책연구』 40(2), 2025.
https://doi.org/10.35372/kmiopr.2025.40.2.003

Zhao Y, Liu S, Zhou J & Ma Y, "Economic and environmental feasibility of Northern Sea Route for container service: impact by ice besetting events," Maritime Policy & Management 51(1), 2024, pp.50-73.
https://doi.org/10.1080/03088839.2022.2084789

9 그러나 해빙이 더 물러나 노보시비르스크 제도 북쪽의 깊은 외측 항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이 물리적 제약은 상당 부분 완화된다. 2026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북극항로 세션에서는 시범 운항에 참여한 선급 전문가가 제도 바깥 해역의 해빙이 상당히 줄어 외측 항로 이용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심 문제가 해소되면 선박 측 제약은 사라지고 결국 남는 문제는 화물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손무성, 「북극항로의 선박과 항해: 시범 운항을 통해 본 운항 준비와 안전관리」, 제20회 세계해양포럼 북극항로 세션 발표, 부산, 2026.11.4.) 정부가 2030년 전후 정기 상업 운항에 이어 2035년 이후 8,000TEU급 대형선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경북매일, 「부산서 북극 거쳐 유럽으로…정부, 2030년 정기항로 연다」, 2026.8.9 https://kbmaeil.com/article/20260809500047) 앞서 살펴본 국내 역량 구축이 5~10년의 과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준비가 과실을 거둘 10~20년 뒤의 경제성은 오늘의 추정과 다른 모습일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는 해빙 조건의 연간 변동성, 대형선의 결빙 해역 복원성과 같은 기술적 과제, 러시아의 항로 관리 체계, 그리고 후술할 제재 환경이 함께 움직인다는 전제 위의 전망이다.

10 국제신문, 「국정위 '해수부 부산이전 인식, 안일하고 부실'」, 2025.6.23.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50623.22001007125

머니투데이, 「해수부, 북극항로 최전선·해양수도로 비상 '시동'…'부산 시대'」, 2025.12.25.
https://www.mt.co.kr/economy/2025/12/26/2025122505283231516

11 World Bank,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 of GDP) - Korea, Rep.,"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24.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E.EXP.GNFS.ZS?locations=KR

기후솔루션, "A study on South Korea's 2050 net zero pathway for shipping," 2024.9.25.
https://forourclimate.org/research/534

12 자국과 정치적 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나라. (편집자 註)

13 Khorrami N, "South Korea as an Arctic enabler: A new diplomatic discourse for South Korea in the Arctic," Seoul Institute of Global Affairs, 2026.5.4.
https://seoulinstitute.com/south-korea-as-an-arctic-enabler-a-new-diplomatic-discourse-for-south-korea-in-the-arctic/

14 Frederiksen MQ, "Unfolding the Arctic story," in Frederiksen MQ & Zhilina I (eds), Arctic Encyclopedia, Arctic Economic Council, 2025.
https://arcticeconomiccouncil.com/wp-content/uploads/2025/12/arctic-encyclopaedia-dec25.pdf

15 Korea.net, "Arctic shipping era starts with historic voyage of domestic vessel," 2026.10.15.
https://www.korea.net/NewsFocus/Business/view?articleId=300997

야코벤코 《러시아 시보드냐》 부사장
다극화 시대의 세계 질서를 말하다

김현택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명예교수

지난 9월 29일 '로스콘그레스'와 한·러비즈니스협의회(KRBC) 공동 주관으로 한·러 비즈니스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다. 정부 차원의 교류가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양국 기업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민간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였다. 러시아 측에서는 기업인들과 함께 양국 관계에 관심 있는 중앙과 지방의 일부 인사가 참석했다. 국제 관계 주요 이슈들에 대한 통찰력 있는 칼럼 필자로 유명한 언론인 알렉산드르 야코벤코도 서울을 찾았다.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현재 대표적 미디어 그룹 《러시아 시보드냐》의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주영국 대사, 외교아카데미 원장 등 비중 있는 직책을 두루 거친 알렉산드르 야코벤코는 국제 정세 흐름과 변화를 독창적 시선으로 읽어내는 전략가로 알려져 있다. RIO 초대석 인터뷰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그는 "글로벌 주요 트렌드: 지정학과 지경학 사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서울에 오기 전에 보내왔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계 질서의 특징을 거시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러시아의 시선으로 조망하는 흥미로운 글이었다. 다극화 시대의 세계 질서, 러시아 대외 정책의 방향 전환,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AI) 주권과 안보, 서방 제재 속에 진행 중인 러시아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금융, 기술, 에너지, 인구와 교육 분야까지 세계 시스템의 재편이라는 포괄적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연결하는 안목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미리 작성한 질문들에 대한 야코벤코 부사장의 서면 답변을 정리한 다음, 비즈니스 포럼 개최 당일 조선호텔에서 가진 별도 면담을 통해 보완한 인터뷰 내용을 10월 호 「RIO 초대석」에 소개한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국제 관계 분야 원로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다가온 만남이었다.



인터뷰를 앞두고 소공동 환구단 앞에 선 알렉산드르 야코벤코 부사장 ⓒ RIO

지난 40년 동안 진행하던 세계화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 세계화의 종말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건 뭔가? 무역 자체의 감소인가,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의 해체인가, 아니면 세계를 하나의 규칙으로 통합하려던 프로젝트의 소멸인가?

어떤 통일된 원칙에 기반한 세계 통합이 이뤄지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하지만 500년간 유지되던 서구의 글로벌 패권이 종식되는 과정인 건 분명하다. 이 패권은 세계의 나머지 지역을 착취해서 생존하는 전적으로 이기적인 형태로 변질됐다. 모든 서구 국가가 안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 규모가 이를 증명한다. 다가올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는 국제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합의한 규범과 규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서구 문명의 가치와 발전 모델을 반영한 유엔 헌장의 일부 내용이 수정돼야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 통합의 재구성 과정은 밑으로부터, 즉 구 세계 질서가 파편화된 통화권을 비롯한 거대 지역 단위에서 시작될 거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공 자본을 제공하던 패권국 미국이 지금은 강압적 방식으로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나라로 변했다. 오바마 대통령 시기와 비교할 때 트럼프식 미국 자본주의가 보이는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미국이 전 세계에 자본을 제공했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을 조달해 왔다. 미국의 연방 재

“다가올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는 국제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합의한 규범과 규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서구 문명의 가치와 발전 모델을 반영한 유엔 헌장의 일부 내용이 수정돼야 할 수도”

> “메가 펀드들이 전면에 나서고, 이를 통해 미국은 다른 모든 국가의 주요 기업과 은행들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니 국가 간 양자 및 다자 협정은 당연히 미국에 필요가 없는 것”

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합하면 현재 3조 달러에 이른다. 바꿔 말하면 이 정도의 자본이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글로벌 사우스에서 흘러드는 대규모 이주에는 불만이다. 미국 자본주의는 금융 부문이 GDP의 70%를 차지하는 금융화 상태에 놓여 있다. 참고로 1913년 연방준비제도(FED) 설립 당시의 비중은 5%였다. 미국이 방위산업과 조선업을 포함한 산업 잠재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는 점도 명백하다. 과거 미국이 영국을 앞질렀듯이 이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황금 함대’ 건조는 도대체 어디서 할 건가? 한국에서인가? 미국이 동맹국들에 실물 경제 부문의 투자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바마 시절과 비교하면 미국 자본주의는 더 중앙 집중적이고 관리 중심적이다. 메가 펀드들이 전면에 나서고, 이를 통해 미국은 다른 모든 국가의 주요 기업과 은행들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니 국가 간 양자 및 다자 협정은 당연히 미국에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새로운 다극 체제에서 ‘주권’의 의미 자체가 바뀌고 있다. 과거의 영토나 군사력 중심의 주권과 다른 새로운 주권은 무엇이 확보돼야 성립 가능한가?

현대적 주권 개념은 기술과 디지털 주권을 전제로 한다. AI는 세계와 금융을 알고리즘으로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는 알렉산드르 야코벤코 부사장 ⓒ RIO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동시에, 가치, 사상, 세계관 차원에서 자신의 문화적·문명적 정체성 유지 능력을 지칭하는 '인지적 주권' 또한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분쟁 중 서방이 대안적 사상과 서사의 배제를 목적으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자국과 세계의 미디어·정보 공간을 봉쇄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았듯이 인지적 주권의 확보는 만만치 않은 과제다.



미디어 그룹《러시아 시보드냐》로고 ⓒ ria.ru

"글로벌 주요 트렌드: 지정학과 지경학 사이"라는 글에서 세계화가 '고정된 중심과 주변부가 없는 분산형 구조'로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 중국 같은 강대국 중심의 위계적 질서가 유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 그리고 현재의 국제 질서 구조 속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는 어떤 방식의 경쟁과 협력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세계를 지배하는 계층적 수직 구조가 과거로 밀려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서구 정치학자들은 '평평한 세계'를 말하면서, 수평적 유대의 중요성과 서구에 비해 낙후된 주변부로 경제력과 기타 권력이 분산되는 현상에 관한 글들을 발표했었다. 세계를 통제하는 어떤 형태의 수직적 구조도 다시 등장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미국이나 중국으로서도 힘이나 자원 측면에서 여의치 않은 일이다. 로마 제국이 몰락한 것처럼,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도 저물고 있다. 제국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분쟁과 미국·이란 전쟁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이란을 능가하지만, 서방측 집단은 힘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서구가 자초했다. 슈펭글러가 말한 '서구의 몰락'이라는 예언이 실현되는 중이다. 이런 관점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2014년 저서『정치적 질서와 정치적 쇠퇴』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발전이라는 영역에서 상호 의존의 필연성을 인정해야 하며, 발전의 이익이 서구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주어지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다. 여기서 우리 시대 글로벌 의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균형 장치(Equaliser)'를 발견할 수 있다. 서구는 자신들이 다른 문명 중 하나이자 여타 거대 지역 중 하나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진정 유럽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미국도 유럽의 빈곤화를 말하고 있다. 이 과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됐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의 GDP 데이터를 20년 전 인구가 각각 3억 4천만 명과 4억 5천만 명이었을 당시 수치와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최근 내부 상황도 많은 걸 시사한다. 유럽이 남긴 세계적 중요성을 띠는 거대한 문화유산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미래에 관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주체는 바로 유럽인 자신이다. 자신들의 발전이라는 버거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유럽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특히 20세기의 전쟁 사이 기간을 특징짓던 '군사화'라는 낡은 '버

> “유럽이 남긴 세계적 중요성을 띠는 거대한 문화유산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미래에 관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주체는 바로 유럽인 자신”

튼’을 누르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달라진 세상에서 낡은 처방은 통하지 않는다. 유럽 사회는 냉전 종식과 함께 서구 정치학자들이 일컫는 이른바 ‘포스트 영웅주의 시대’에 진입했다. “들이받는 소한테는 신이 뿔을 주지 않는다”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기대치를 낮추고, 땀 흘려 일해야 살 수 있다. 이는 다극화 시대에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글로벌 사우스와 동양에 대한 신식민주의적 착취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과 결부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 나라들을 기술적인 종속 상태에 더는 묶어 둘 수도 없는 세상이 됐다.

러시아는 브릭스(BRICS) 확대를 다극화의 핵심 동력으로 여기는데, 서방 일각에서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므로 결속력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BRICS가 기존 경제 질서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뭔가?

무력 사용과 제재 압박 등을 포함한 서구의 지배 방식을 주권 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구축된 브릭스 플러스(BRICS+) 국가들 사이의 관계와 비교하면 안 된다. BRICS+는 서구식 군사·정치 동맹이 아니다. 또 서방 동맹 내 ‘미국 리더십’과 다르게 특정 국가가 앞장서 감독하는 질서도 아니다. 나는 BRICS+를 믿음을 갖고 목표 지점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는 동양의 카라반에 비유하곤 한다. 이는 다극적 세계 질서의 원형이자, 유엔 헌장에 전적으로 부응하는 서구식 국제 관계에 대한 일종의 대안적 실험에 해당한다. 또 서구의 지배 구조가 붕괴할 때 세계가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일 수도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존재하는 유라시아의 상황, 나아가 동아시아의 상황을 유럽과 북미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과 비교해 볼 것을 제안한다.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 자연스러운 질서는 500년 만에 복귀 중이다. 서구의 패권은 낡은 신발과 옷처럼 누추하다. 누구에게는 이를 깨닫는 게 쉽지 않을 것이나, 현재 진행 중인 세계 변혁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려면 더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사고해야 한다.



2024년 카잔에서 열린 BRICS 정상회의 로고 ⓒ newagebd.net

러시아 대외 정책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 외교적 의존 심화, 더 나아

가 동반자 관계를 넘어선 비대칭적 종속을 우려하는 일부 시선이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균형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서방의 선전 공세 중 하나다. 그들은 러시아가 서방과 중국 양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는 서방이나 중국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러시아의 천연자원과 기타 자원(전 세계 총량의 30%를 차지)을 두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러시아는 항상 독립적 주권 정책을 펼쳐왔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를 누누이 강조했다.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 러시아의 운명이자 역사적 사명이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그리고 전후 20년 동안 우리는 러시아가 기술적 도약을 이룰 수 있음을 증명했다. 서방에서도 인정하는바, 현재 러시아는 방위산업 분야는 물론 우주, 원자력, 조선, 항공 등 민간 분야에서도 이를 실천하고 있다.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한국이 가스 운반선 건조를 거부했는데, 지금 극동 지역에서 우리가 직접 건조 중이다. 따라서 문제는 러시아의 중국 의존이 아니라, 대등한 협력 관계이자 상호 이익에 관한 것이다. 또한 우리 인간 삶의 범위는 넓고도 넓다. 한때 중국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했듯이 지금은 자급자족의 필수 기본 요소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다. 세계 곳곳에서 식량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걸 가진 나라가 러시아다.

여기서 나는 전략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자신의 후기 저작에서 러시아와 튀르키예를 통합한 '더 크고 더 활기 있는 서구'를 구축할 필요성을 언급했던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그러려면 서구가 근본적으로 변해서 러시아와 문명적으로 양립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서구는 아직도 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군사력(재래식 무기 및 핵 억제력 둘 다 포함)과 주권적 자급자족 능력을 갖춘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지점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 정치학자들이 이미 언급하기 시작한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긴장 완화가 러시아를 희생양으로 만들 것이라는 의견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러시아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미국의 재산업화가 군사화와 결합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의 산업 정책을 안보 정책과 분리해서 이해하는 게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인가? 또 유럽의 산업이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군사적 궤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압력 때문인가?

에너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으로 민간 산업이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생산에서 군사 생산으로의 전환은 유럽에서 더 두드러진다. 관세 문제도 이와 병행해서 다뤄지고 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주식 시장의 '회전'이 계속되는 한 미국인들이 자국 경제의 실물 부문에 투자하려 들지 않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미국 내 산업 재건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군산복합체도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다. 이미 전문성을 많이 상실했고, 생산 기반이 탄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러시아 역시 이런 상황에 봉착했

"미국 정치학자들이 이미 언급하기 시작한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긴장 완화가 러시아를 희생양으로 만들 것이라는 의견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러시아로서는 환영할 일"

> “미국의 관심은 중국의 시장이 된 유럽을 무너뜨리고, 동맹국들이 미국의 방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미국에게 현재의 나토(NATO)는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진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된 셈”

으나 2000년 푸틴 대통령 당선 이후 추진된 정책으로 ‘푸틴 시대’는 실물 경제의 재건을 의미하게 됐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자신들의 패권이 영원할 것으로 믿고 이 시간을 놓쳤다. 게다가 힘과 기술력 면에서 자신들과 대등한 적과 싸우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내가 보기에, 미국의 관심은 중국의 시장이 된 유럽을 무너뜨리고, 동맹국들이 미국의 방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미국에게 현재의 나토(NATO)는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진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된 셈이다.



인터뷰 중인 알렉산드르 야코벤코 부사장 ⓒ RIO

서방의 관세, 제재, 수출 통제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서방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경제 제재가 단기적 효과는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탈서방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달러, 금융시장, 기술, 군사력 등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서방의 쇠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현 단계에서 서구의 쇠퇴가 상대적 수준이라는 지적에는 어느 정도 수긍한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달러와 이를 토대로 하는 상호 의존성 등 의존하던 압박 수단들이 점차 힘을 잃고 있다. 미국은 자신을 로마 제국과 종종 비교하곤 하는데, 로마 제국에 포함된 지역들은 군사적·경제적 안보를 포함해서 제국 구성단위로서의 이점을 누렸다. 반면 현재의 미국은 이와 정반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이는 제국의 자멸을 의미한다. 참고로 아놀드 토인비는 제국에는 군국주의 형태의 ‘자살적인 국가 경영술(Statecraft)’이 내재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 상황에서 군국주의는 이란을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무의미하다. 미국이 군사적 재편을 진행하는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은 앞서 나갈 것이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새로운 세계 질서로의 전환에 필요한 주요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다.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리겠지만,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모든 경기의 종료 시점에는 가속화와 급격한 사건 전개가 일어난다.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변화할 때는 단기 혹은 장기 전망 같은 개념들이 별 의미가 없다. 서방이 세계정세와 세계 발전에서 이제 ‘주도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누가 어떻게 규정하든 간에, ‘서구의 쇠퇴’ 과정을 보여주는 새로운 양상임이 분명하다. 러시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 궤도에 진입하고, 중국의 발전을 더는 ‘억제’할 수

>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변화할 때는 단기 혹은 장기 전망 같은 개념들이 별 의미가 없다. 서방이 세계정세와 세계 발전에서 이제 ‘주도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중요”

없는 단계에 도달한 2008년 무렵 서구가 헤게모니 유지 싸움에서 패배했다고 나는 보고 있다.

다극화 질서 형성의 핵심 요소로 ‘탈달러화’가 거론된다. 러시아와 중국이 추진 중인 독자적 금융 결제망과 다자간 통화 협력이 글로벌 거시경제에 미칠 장기적 파급효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SCO와 BRICS+가 달러를 ‘밀어낸다’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으로 미국의 정책이 강요하는 달러 통제권 밖에서 대안적 공간을 조성하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의 ‘미르’처럼 국가 차원의 것이든 중국의 국경 간 위안화결제시스템(CIPS)이나 엠브리지(mBridge) 같은 국제적인 것이든 간에 여기에는 자국 통화를 이용한 독립적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이 두루 포함된다. 요컨대, 서구의 금융 도구와 구조가 붕괴할 때 우리는 그곳에 없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보다 덜 개입된 상태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국가와 심지어는 민간 기업까지 금으로 자산을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금본위제로의 자연스러운 회귀를 동반한 통화권의 형성을 실제로 기대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민간 은행을 통한 암호화폐 발행 경로를 통해 심각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고, 이로써 국채 매입의 여력을 확대할 것이다. 이 구상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른바 ‘시간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주식 시장이 붕괴하고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암호화폐 표준이 수립되고 공고화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어떤 예단도 할 수 없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주권 경쟁이다. AI 경쟁의 주요 주체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를 꼽았는데, 이 나라들이 갖는 구조적 공통점은 무엇인가? 반면에 유럽에 대해선 상당히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AI 경쟁에서 유럽이 뒤처진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나?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알렉산드르 야코벤코 부사장 ⓒ RIO

내가 언급한 네 나라는 이 분야의 경쟁에 나설 충분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가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럽은 이 분야에서 손을 놓았고 또 관심을 기울


2026년 노보시비르스크주 콜초보 과학도시에 완공된 제4세대 고휘도 방사광 가속기 SKIF ⓒ 위키피디아

일 여력이 없다. 유럽의 빈곤화는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정치 엘리트들이 '나 다음엔 대홍수가 닥쳐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과거 속에 안주하면서 정치적 문제들까지 유럽을 더 압박하는 상황이 됐다. 속된 말로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입장이 된 거다. 10년 전 영국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의 보수당 정부는 자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 주력 수단으로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포함한 중국의 투자에 공개적으로 기대를 걸었다.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에서 '황금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화웨이를 탄압하고 나서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

AI가 시장을 대체하는 '에이전트 중심 경제'가 전통적 자본주의를 끝내고 '디지털 봉건주의' 또는 '플랫폼 식민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미리 보내 준 글에서 읽었다. 이런 예속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 국가가 당장 취해야 할 '디지털 주권'의 핵심 조치는 어떤 것인가?

핵무기 역사를 되돌아봐야 한다. 핵무기에 대한 일방적 독점은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소련의 핵무기 개발은 힘의 균형과 안정을 보장했고, 이를 통해 다른 모든 국가에 기동의 여지와 주권을 (진영 간 이념적 대립과 여타 대립의 틀 안에서 제한적이긴 했어도) 확보해 줄 수 있었다.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AI 분야의 협력을 다루는 국제기구 창설이 아마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 같다. 경제 전반에 관한 문제처럼 이 과제 또한 상호 의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등장한 국제기구가 정치적 절제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사회 지향적 경제 역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라는 고통 속에서, 그리고 소련의 '도전(더 정확한 표현은 '사례')'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탄생했다. 공유하고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고전적 자본주의가 국민의 절대적 빈곤과 내전을 초래하리라는 것을 지배 엘리트들은 깨달았었다. 그 결과 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광범위한 중산층이 등장했는데, 지금은 그 중산층이 소멸하는 중이고 당연히 민주주의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던 것처럼 경제적 파탄은 전쟁에 버금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I 분야의 협력을 다루는 국제기구 창설이 아마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 같다. 경제 전반에 관한 문제처럼 이 과제 또한 상호 의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러시아가 까닭 없이 핵 잠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팔란티어 창립자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이를 우회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

데이터센터 시장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결국 ‘지에너지학(Geo-Energetics)’이 안보의 핵심적 취약 부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만약 기술 경쟁국이 상대국의 데이터센터 전력망을 타격하거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것 같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인다면, 핵 억제력을 우회하는 수준을 넘어 전면전으로 격화할 가능성도 있을까?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당사자가 각자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직접적인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하나의 고민은 인류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기술에 그토록 엄청난 에너지와 담수를 쏟아붓는 것이 과연 얼마나 생산적이고 합리적이냐는 점이다. 이 문제 역시 국제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실제로 에너지가 부족하고,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에너지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만약 아프리카 대륙이 세계적 소비를 위한 마지막 주요 자원에 해당한다면, 이 대륙은 자신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훨씬 더 많이 지원받아야 마땅하다.

핵 억제력에 관해 말하자면, 러시아가 까닭 없이 핵 잠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팔란티어 창립자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이를 우회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올해 그들이 발표한 두 개의 선언문과 작년에 출간된 알렉스 카프의 책 『기술공화국 선언』을 일독하길 권한다. 이 도서 참고문헌 목록에 슈펭글러가 들어 있지만, 본문 어디서도 그를 인용하지는 않고 있다.

AI, 드론, 사이버전, 정밀 무기 등의 발전이 핵 억제력의 상대적 중요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가?

선험적으로 그런 가정이 가능하다. 인간은 과거를 잊는 성향이 있는데, 때로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에 절대 나서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러시아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 엘리트들의 이데올로기적 독단주의는 극에 달해 있으며, 이는 유럽의 합리주의적인 세속 문화 원칙과 근본적으로 상충한다. 안타까운 일이나 나치즘의 사례가 보여주듯 어떤 유럽 문화도 야만성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게다가 인종주의적 요소도 존재한다. 일본을 향해서는 원자폭탄 사용이 가능했어도 유럽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종주의자가 아니다. 유럽은 17세기의 종교 전쟁을 포함한 자신의 역사를, 그리고 슈펭글러가 ‘파우스트적’이라고 불렀던 자신들 세계관의 기초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새로운 다극 질서 정착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지 않고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안정적인 다극 체제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가?

서구적인 모델이 아닌 BRICS+ 같은 다자간 연합의 영향력 증대는 다극적 세계 질서 형성

> “트럼프 시대의 유럽과 미국 사이의 관계 문제는 미국에는 강대국의 대안적 선택지가 있지만, 유럽의 ‘역사적 강대국’들에는 그런 선택지가 없다는 점에 있어”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는 데 아주 중요하다. 핵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며, 우리도 그들도 이를 용납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 외의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 트럼프 시대의 유럽과 미국 사이의 관계 문제는 미국에는 강대국의 대안적 선택지가 있지만, 유럽의 ‘역사적 강대국’들에는 그런 선택지가 없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단결하고 통합된 유럽을 지탱하기 위한 어떤 동기가 필요했고, 바로 이것이 우크라이나 분쟁의 지속을 지지하는 그들의 강경한 입장의 배경이다. 트럼프는 이미 ‘경쟁적 공존’을 말하고 있다. 냉전 당시에도 그랬듯이 이는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데올로기라는 ‘벽돌’을 빼내면 모든 것을 훨씬 더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미국의 러시아 압박과 제재로 인해 기술 주권이 러시아에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됐다. 우리 RIO에서도 이 기술 주권 문제를 9월 호부터 특집으로 연재하며 본격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기술 주권 분야에서 러시아가 도달한 성과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조선 및 항공기 제조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다. 제재 때문에 우리는 이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 점에 대해 제재를 가한 측에 감사를 표한다! 러시아 속담에 “천둥이 치기 전에는 성호를 긋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우주와 평화적 원자력 분야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빠르게 대응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양자 컴퓨팅도 여기에 포함된다. 궁극적으로는 인적 자본이 경제 자원이다. 발전의 역사적 연속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교육 시스템 전반에서 변혁의 속도가 무척 빨라진 것도 인상적이다. 여러 인프라 환경이 구축되면서 창의적 활동들이 활기를 띠고 있고, 2030년에는 러시아 GDP의 6%를 창조 산업이 담당한다는 청사진도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러시아는 AI 기술, 에너지, 데이터 등 기술 주권 대국에 필요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래도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인구 규모, 산업의 활성화, 피지컬 AI 등에 의존하는 데이터 분야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인구 규모 면에서 중국이나 인도, 심지어 미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건 부인할 수



러시아 기술로 제작한 여객기 MS-21 기종의 이륙 장면 ⓒ 위키피디아

> “지난 3세기 동안 차르 정부와 소련 정부 시절 삶과 학술 분야에서 소홀히 했던 문명적 접근 방식을 오늘의 러시아는 받아들이고 있어”



2025년 키릴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로부터 알렉산드르 넵스키 훈장을 수여받은 알렉산드르 야코벤코 부사장 ⓒ 텔레그램 rian_ru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도 국가가 성장세를 보인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 특수군사작전을 계기로 러시아 자체에 변화가 일고 있다. 냉전 종식 후 등장했던 러시아가 서구에 ‘진입’할 수 있다는 환상의 부정적 후유증을 극복하면서 러시아 자체로, 우리의 뿌리로 돌아가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특수군사작전의 가장 중요한 성과일 수도 있다. 지난 3세기 동안 차르 정부와 소련 정부 시절 삶과 학술 분야에서 소홀히 했던 문명적 접근 방식을 오늘의 러시아는 받아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미래 발전 동력은 우주, 북극, 창조 산업 등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한국도 관심이 있는 북극항로의 활성화 속도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다는 통계가 있다. 물류 수송량의 목표치 달성이 예상보다 더 늦어지고 있고, 중국이 차지하는 물동량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 등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북극횡단운송회랑(TATC)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운송 회랑 활성화를 위한 러시아의 구체적 전략은 무엇인가?

서구의 시선으로 보면 러시아의 준비가 더딜 수 있다. 중요한 건 앞으로 펼쳐질 미래다. 북극항로의 이용을 우리가 서둘러 추진하는 건 아니어도 관련 인프라가 꾸준히 개선되는 가운데 이 운송 통로의 수요가 증가하리라는 객관적 여건들이 성숙하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남쪽을 우회하는 경로의 대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석유·가스 가격을 고려할 때 운송비 비중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러시아는 대륙을 관통하는 육상 회랑 분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고, 또 유라시아 전역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패배로 유럽이 달라진다면, 그쪽에 공급량을 늘릴 준비도 돼 있다.

우리 시대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와 유사한 ‘메타 수준의 인식(포괄적 지식을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거라는 주장이 흥미롭다. AI 시대에 개별 인간과 지도자들이 이런 메타 수준의 인식을 갖추려면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개혁돼야 하는가?



북극해를 항행하는 원자력 쇄빙선 '우랄' 호 © picabu.ru

기술의 놀라운 발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메타지식을 추구하게 한다. 모든 지식의 기반에는 인문학 교육, 즉 언어, 문학, 예술, 역사, 철학이 있어야만 한다. 그 토대 위에 인간과 세계 속에서의 인간 위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AI의 발전에 따라 지극히 중요해진 인간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일이 교육 시스템의 질적인 변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헨리 키신저가 서구 엘리트들에게 남긴 정치적 유산에 해당하는 자신의 저서 『리더십: 현대사를 만든 6인의 세계 전략 연구』에 담긴 견해를 인용해 본다. 이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는 자신의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에서 성과를 거둔 정치 지도자들이 지녀야 할 주요 자질로, 국민과 뜻을 같이하기 위한 역사와 철학, 종교와 교육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세계주의나 스스로를 '세계시민'이라 여기는 이들과 구별되는 자신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헌신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생각하는 여유를 주는 고독의 시간과 함께 세태의 흐름에 맞설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도 썼다.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문학의 힘을 강조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글로벌 주요 트렌드를 논하면서 소개한 '5단계 생태계' 구조가 매우 흥미로웠다.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같은 '연결 국가'가 지역적 불안정에 극도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는데, 최근 페르시아만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 이 생태계 모델의 '연결 국가' 그룹에 한국이 진입할 수 있을까?

한국이 극동 지역과 이를 넘어서는 공간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의 잠재력은 대단하다. 중요한 것은 더 넓은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과거에서 벗어나 한국이 속한 지역과 세계가 질적으로 새롭게 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사고를 전개하는 일이다. 물리적 국경을 넘어 전개될 한국의 확장은 많은 나라가 환영할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한·러 관계가 어려운 시기다. 러·북 밀착 상황 속에서 한·러 관계가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한국 내 시각도 있고, 러·북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의 한·러 관계를 바라보는 러시아의 입장과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러·북 관계가 러·한 관계 발전에 방해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러시아는 남북 관계의 영역에 개입한 적이 없다. 한반도 북부가 소련에 의해 해방됐고, 한국 전쟁이 한반도에 깊은 흔적을 남기긴 했지만 말이다. 역사적으로는 제정 러시아 때부터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우리는 비무장지대로 나뉜 양측 모두에게 선의를 갖고 있다. 남북 관계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러·북 관계를 더 긴밀하게 만든 건 서방이 러시아에 강요한 우크라이나 분쟁 때문이다. 특수군사작전은 곧 끝날 것이며, 따라서 한국이 참여하는 제재 체제도 종료될 것이다.

>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한국이 추구하는 ‘분할적 접근’은 과거의 반영일 뿐 미래에도 유효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 차원의 변혁에 따라 우리 양국 관계가 확대되고 심화할 것으로 확신”

한국에서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리고 에너지·교통 회랑 분야는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향후 한·러 관계에서 AI, 기술, 창조 산업과 같은 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모든 분야에 걸쳐 양국 관계 발전의 장애물은 없다. 한국 K-팝은 중국의 TikTok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한국이 추구하는 ‘분할적 접근’은 과거의 반영일 뿐 미래에도 유효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 차원의 변혁에 따라 우리 양국 관계가 확대되고 심화할 것으로 확신한다. 변화하는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러시아도 한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세계 질서에 승부를 걸 이유가 없다.

전통적 외교의 역할이 축소되는 시대다. 한·러 관계는 어렵지만, 다행히 한국에서 러시아 혐오 분위기가 강하지 않고 러시아 젊은이들의 한국 호감도가 무척 높다. 공공외교, 디지털 외교 분야에서 양측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젊은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카드 패를 쥐고 있으니,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차원에서 젊은 세대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만 하면 된다. 미디어를 통한 양국 간 교류도 여기에 분명히 이바지할 것이다. 다만 각자 정보 공간을 더 폭넓게 개방하고, 판단은 청년들에게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에 서방이 회피하려 했던 개방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이 가능해야 우리 두 나라 젊은이들의 관심과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인터뷰를 마치고 조선호텔 인근에서 ⓒ RIO

경유의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의 문화적 기억

라승도 RIO Institute 연구위원

체호프의 경유

작가 안톤 체호프(1860~1904)는 1890년 10월 3일 방문한 사할린 여행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서 섬 최남단 코르사코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귀환하는 길에 10월 16일 아침 블라디보스토크에 들러 19일까지 나흘간 체류했다. 당시 체호프는 외국을 거쳐 모스크바로 귀환하는 여정에 필요한 공식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잠시 들렀다. 그는 홍콩, 싱가포르, 실론(현재 스리랑카) 등 외국 땅을 거치는 장기간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여권을 발급받아야만 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무는 동안 가장 먼저 연해주 지사 사무실(현재 스베틀라나 거리 52번지)과 쑤이펀허 거리의 경찰서(현재 우보레비치 거리 9번지), 세관 등을 방문했다. 또한, 전신국에 들러 형에게 전보를 보내서 대략 12월 10일 모스크바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런 필수 절차를 우선 마치고 나서 체호프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때 그가 둘러본 장소 중 하나는 현재 표트르 대제 거리의 '아르세니예프 국제전시센터' 건물에 있었던 아무르지방연구협회 박물관이었다. 이 박물관은 체호프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기 보름 전인 1890년 9월 30일에 개관했다. 따라서 그는 개관 이후 박물관을 가장 먼저 방문한 사람 중 한 명이었을 뿐 아니라, 현지인들이 '과학과 예술의 성전'이라고 자랑스럽게 부르던 블라디보스토크의 주요 박물관을 찾은 최초의 유명 인사이기도 했다.[1]

특히, 체호프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나흘간 머물면서 그 뒤로도 박물관을 세 번 더 방문했다. 그는 박물관 내 도서관에 소장된 지역 신문《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할린 관련 보도 자료를 찾아서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자 출판인인 알렉세이 수



표트르 대제 거리의 '아르세니예프 국제전시센터' 건물. 건물 외벽 중앙에 체호프 두상이 새겨진 기념 현판이 부착돼 있다. 1890년 10월 체호프는 이곳에 있었던 아무르지방연구협회 박물관을 네 차례 방문했다. ⓒ RIO

보린(1834~1912)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주 훌륭한 신문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되고 있다"[2]라고 밝혔다. 또한, 작가 보리스 라자렙스키(1871~1936)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보고 느낀 소감을 말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의 삶은 지루할 틈이 없고, 마치 유럽에 있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의 가을 날씨에 감탄하면서 고래를 봤다고도 말했다. "10월임에도 날씨가 정말 환상적이고 따뜻했다. 만을 따라 진짜 고래가 헤엄치며 꼬리를 펄쩍펄쩍 치고 다녔는데, 한마디로 정말 멋진 기억이 남았다."[3] 그러나 체호프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해 긍정적 소감만 밝힌 것은 아니었다. 사할린 여행에서 돌아온 지 4개월 후인 1890년 12월에 체호프는 수보린에게 보낸 편지에서 "절망에 빠지게 할 만큼 극심한 빈곤과 무지"[4]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사로잡고 있다면서 정반대의 부정적 인상을 전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체호프는 당시 블라디보스토크를 둘러싼 빛과 어둠의 다면적 면모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했다.

한편, 체호프는 생긴 지 겨우 30년밖에 되지 않은 변방의 항구 도시에 잠시 들러 체류함으로써, 바다와 (섬과) 육지, 국외와 국내 사이를 거쳐 가는 주요 경유지로서 블라디보스토크의 고유한 지역 이미지와 정체성, 문화적 기억이 형성되고 축적되는 과정에 음양으로 이바지했거나 관련된 러시아 주요 작가나 시인 중에서 최초가 됐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체호프처럼 러

> "체호프는 경유지로서 블라디보스토크의 고유한 지역 이미지와 정체성, 문화적 기억이 형성되고 축적되는 과정에 이바지했거나 관련된 러시아 주요 작가나 시인 중에서 최초"



2018년 7월 2일 블라디보스토크 아지무트 호텔과 해안로 사이의 소공원에 제막된 안톤 체호프 동상 ⓒ RIO

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들의 방문은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변방 도시의 문화적 유산과 기억을 풍요롭게 하는 데 크게 일조한다는 점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체호프의 방문 120주년을 맞아 2010년에 '니켈 왕'으로 불리는 올리가르흐 블라디미르 포타닌 재단 후원으로 예술 프로젝트 '체호프가 여기 왔었다'가 기획됐고, 이 과정에서 작가가 당시 방문했던 박물관 건물 외벽에 그의 두상을 새긴 기념 현판이 설치된 일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바람직하고 주목할 만한 문화적 기억 보존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18년에는 시내 중심부의 아지무트 호텔 아래쪽의 작은 녹지가 체호프 소공원으로 명명됐고, 이곳에 작가의 전신상이 설치됐다. 이 동상은 뒤편 벤치에 여행 가방을 놓아두고 앞으로 내민 왼손에 책을 펼쳐 들고 멀리 아무르만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는 체호프가 라자렙스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묘사한 고래 이야기를 환기하는 문화적 기억의 시각적 재현 사례로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 특히, 벤치에 올려놓은 여행 가방은 체호프가 먼 길을 떠나는 도중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잠깐 들렀고, 곧이어 여행길에 다시 오를 것임을 시사한다.

만델시탐, 시인의 죽음

블라디보스토크는 일리야 악쇼노프 감독의 2018년 영화 제목처럼 '세상의 끝'으로도 종종 불리곤 하지만, 이보다 약 130년 전인 1890년에 체호프의 방문을 통해 경유지로서 지역적 성격과 문화적 기억을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블라디보스토크는 바로 체호프가 경유한 덕분에 그와 관련한 러시아 문학사에도 도시 이름을 처음으로 올릴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지적해야 할 사실은 '은세기' 러시아 문학과 '아크메이즘' 시 사조를 대표하는 천재 시인 오시프 만델시탐(1891~1938)이 체호프의 방문 이후 거의 반세기 만인 1938년에 블라디보스토크 환승 수용소까지 끌려왔다가 발진티푸스와 심장마비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

> “블라디보스토크는 만델시탐이 스탈린 풍자시 여파로 재체포되어 ‘세상의 끝’까지 끌려와서 끝내 죽음을 맞이했던 비극적 이야기를 통해 러시아 문학사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려”

았다는 것이다. 잘 알려졌듯이, 1933년 11월 만델시탐은 「스탈린 에피그램」으로 불리는 16행짜리 풍자시에서 이오시프 스탈린을 ‘크렘린의 산악인’이자 ‘굵은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처형하며 즐거워하는 인물’로 묘사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5]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34년 5월 만델시탐은 스탈린의 비밀경찰인 내무인민위원회(NKVD)에 체포되어 유배형을 선고받고 러시아 남부 보로네시로 강제 이주하여 여기서 1937년까지 살았다. 이후 시인은 형기를 다 채우고 유배에서 마침내 풀려났지만, 곧이어 불어닥친 스탈린의 대숙청 광풍을 끝내 피하지 못하고 다시 체포됐고, 교정 노동 5년 형을 선고받고 극동의 콜리마(마가단)에 있는 굴라크(GULAG, 강제노동수용소)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죄수들을 콜리마까지 싣고 가는 수송선에 오르지도 못한 채 1938년 12월 27일 블라디보스토크의 환승 수용소인 제2레치카에서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다. 더욱이, 그의 시신은 다른 사망자들과 함께 꽁꽁 얼어붙은 수용소 인근 땅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다가, 봄이 돼서야 커다랗게 판 구덩이에 집단 매장됐다. 이런 이유로 시인의 유해가 정확히 어디에 매장돼 있는지 오늘날까지도 전혀 알 수 없다.[6]

이처럼, 블라디보스토크는 만델시탐이 스탈린 풍자시 여파로 재체포되어 ‘세상의 끝’까지 끌려와서 끝내 죽음을 맞이했던 비극적 이야기를 통해 러시아 문학사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만델시탐에게 블라디보스토크는 체호프의 경우와 다르게 또 다른 곳으로 거쳐 가는 경유지가 돼 주지 못했고, 오히려 영화 제목처럼 ‘세상의 끝’이자 삶의 종착지가 돼 버렸다. 만약 그가 블라디보스토크 환승 수용소에서 잘 견뎌내어 마가단행 배에 올라타서 콜리마 굴라크까지 가서 굳게 버텼다가 생환할 수 있었다면, 그에게도 블라디보스토크는 환승지로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만델시탐은 수용소 문학의 대표 작가 바를람 샬라모프(1907~82)나 러시아 우주 개척의 아버지 세르게이 코롤료프(1907~66)가 그랬던 것처럼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하얀 죽음의 땅’으로 불리는 콜리마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는 경유지 또는 환승지에서 더 멀리 가지 못하고 여기서 쓰러져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박해의 기억

결국 블라디보스토크는 만델시탐에게만큼은 경유지가 아닌 종착지였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는 1937년 7월 이곳 환승 수용소에 도착한 샬라모프나 1938년 7월 이곳으로 끌려온 예브게니야 긴즈부르크(1904~77)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정치범이 콜리마로 최종 이송되는 과정에서, 혹은 코롤료프처럼 콜리마 굴라크에서 풀려나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다시 거쳐 갔던 정치 박해 피해자들의 경유지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런 점에서 달리 말하



1998년 처음 제막된 이후 파괴됐다가 2003년 현재의 국립경제서비스대학교 교정 안에 재설치된 오시프 만델시탐 동상 ⓒ RIO

자면, 1937~38년 스탈린의 대숙청 시기에 블라디보스토크는 콜리마로 끌려가는 정치 박해 피해자들의 경유지로서 문화적 기억을 도시 역사의 장에 본격적으로 새겨넣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탈린 시대 국가 폭력 희생자들이 만델시탐처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생을 마감했든, 샬라모프처럼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콜리마로 갔다가 다시 모스크바로 생환했든 간에, 그들에 대한 문화적 기억이 기념비 등에 새겨져서 블라디보스토크의 도시 공간에 구체적으로 재현되기까지는 그로부터 적잖은 세월이 걸렸다. 예를 들면, 만델시탐은 약 50년 후인 1987년에야 복권됐고, 시인을 추모하는 기념 동상은 그로부터 11년 뒤인 1998년에야 제막됐다. 또한, 2014년 7월 30일에는 과거 환승 수용소가 있었던 지역에 '믿음과 소망의 소공원'이 조성됐고, 이곳에 스탈린 시대 정치 박해 희생자 추모 기념비가 제막됐다.[7]

사실, 만델시탐 동상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했던 현지 조각가 발레리 네나지빈(1940~2017)이 시인의 복권 직전인 1985년에 제작해서 자신의 작업실에 오랫동안 보관해 온 것이었다. 철근 콘크리트로 제작된 이 동상은 시 당국의 결정에 따라 소련 해체 이후 7년가량 지난 시점인 1998년 10월 시인의 사망 60주년에 맞춰 제2레치카 지역 경계선에 있는 고골 거리 광장에서 제막되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만델시탐 동상은 제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99년 4월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이어 공격받은 끝에 완파됐다. 이에 따라 2001년 12월 이번에는 주철로 새롭게 제작된 동상이 그 자리에 다시 세워졌다.[8] 하지만 훼손과 파괴 행위가 여전히 그치지 않은 데다가 도시 환경 조성 계획까지 새로 발표되자, 시인의 동상은 파괴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되면서 2003년 현재의 국립경제서비스대학교 교정 안에 재설치됐다.[9] 거칠고 깡마른 몸에 죄수복을 떠올리게 하는 복장을 한 만델시탐의 '수용소 동상'[10]은 특유의 고뇌에 찬 표정과 웅크린 듯한 신체 곡선을 잘 보여준다. 이는 폭압 체제 앞에 무기력하게 희생되면서도 정신적 저항을 멈추지 않았던

> “만델시탐 동상이 특정 장소에 숨어 있다시피 고립된 상황은 스탈린 시대의 정치 박해에 대한 문화적 기억을 둘러싸고 러시아 사회가 분열해 있음을 시사해”

시인의 나약함과 숭고함을 동시에 드러낸다.

흥미롭게도 환승 수용소에서 만델시탐의 희생을 둘러싸고 형성된 블라디보스토크의 문화적 기억은 2018년 12월 27일 시인의 사망 80주년 기념일을 맞아 루스키섬에 있는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 인문학부 건물 근처 정원에서 열린 시인의 두 번째 동상 제막식을 통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표출됐다.[11] 이 두 번째 동상은 조각가 네나지빈이 1985년 최초로 제작한 원형 설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두 번째 동상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대학 캠퍼스라는 안전하고 학술적인 공간 안에 자리 잡고 있다. 한편으로, 이는 만델시탐의 문학 정신과 유산이 젊은 세대에게 깊이 기억되고 널리 확산하도록 하는 의도를 담고 있기도 하다.[12] 다른 한편으로, 시인의 동상이 이처럼 특정 장소에 숨어 있다시피 고립된 상황은 스탈린 시대의 정치 박해에 대한 문화적 기억을 둘러싸고 러시아 사회가 분열해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특히, 소련 붕괴 이후 스탈린 향수를 중심으로 점증하는 이른바 소비에트 노스탤지어 세력에게는 스탈린 체제를 강력히 비판했던 만델시탐 같은 존재가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탈린 시대의 국가 폭력과 정치 박해에 대한 어떤 기억 행보도 그들에게는 자국의 과거 흑역사를 들춰내려는 반애국 행위로 보일 것이다.



2018년 12월 27일 시인의 사망 80주년 기념일을 맞아 루스키섬에 있는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 인문학부 건물 근처 정원에 제막된 오시프 만델시탐 동상 ⓒ RIO

솔제니친, 대문호의 금의환향

블라디보스토크가 경유지로서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면서도 러시아 문학사와도 긴밀하게 연결된 또 다른 중대한 역사적 사건은 20세기 러시아 문학 대문호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자 망명 작가였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1918~2008)의 영주 귀국 대장정 과정에서 일어났다. 1991년 9월 17일 소련 검찰은 솔제니친에 대한 반역죄 기소를 취하했다. 그러자 미국 버몬트주에서 망명 생활 중이었던 솔제니친은 1974년 자신에게 내려진 국가 반역 혐의 기소 취하를 환영했고,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솔제니친의 귀국 열망은 그로부터 3년도 채 되지 않은 1994년 5월에 마침내 현실화했다. 그해 5월 26일 솔제니친은 20년간 망명 생활했던 버몬트를 떠나 러시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솔제니친이 탄 비행기는 대서양을 건너 모스크바로 곧장 날아가지 않았다. 그의 비행기는 미국 동부에서 서쪽으로 기수를 돌려 날아갔고 본토 국경을 넘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중간 착륙했다. 같은 날 솔제니친은 다시 비행기에 올라서 서쪽으로 더 날아가 베링 해협을 건넜고 곧이어 마가단에 도착했다.[13]

그렇다면 솔제니친이 러시아 영구 귀국길에 편한 경로를 놔두고 굳이 고생하며 멀리까지 날아가 첫 기착지로 마가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마가단이 스탈린 시대에 수많은 정치 박해 희생자가 끌려가 수난당한 악명 높은 콜리마 굴라크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솔제니친 자신도 1945년 친구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에서 스탈린을 비판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굴라크에서 8년간 복역하며 교정 노동했고 출소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3년간 유형 생활했다. 그는 굴라크에서 직접 경험한 수용소 생활을 바탕으로 1962년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써서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와 함께 이후 발표한 『수용소 군도』 등을 계기로 1970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바로 이런 수용소 관련 배경에서 솔제니친은 귀국길의 첫 기착지로 마가단을 선택했고, 마가단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땅에 엎드려 입을 맞췄다. 그는 이 상징적 의식을 통해 스탈린 시대 국가 폭력과 정치 박해에 희생된 무고한 사람들을 애도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다.

다음날인 5월 27일 솔제니친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번에는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그는 환영하는 시민들과 반갑게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시내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나서 모스크바 도착까지 2개월이 걸렸던 시베리아횡단열차에 몸을 실었다. 이처럼 솔제니친은 귀국길 경유지로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잠깐 머물렀지만, 그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열차를 타고 육로 귀국길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야기는 그에 대한 블라디보스토크의 문화적 기억 속에 오늘날까지 긴 여운을 남겼다.[14] 이와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솔제니친이 20년간 미국 망명 생활을 접고 러시아로 귀국할 때 첫 기착지였던 마가단에는 기념비나 안내판 등 그를 기억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지만,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그의 역사적인 경유를 기념하는 동상이 2015년에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솔제니친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조국

> “솔제니친이 영구 귀국길에 첫 기착지로 마가단을 선택한 이유는 이곳이 스탈린 시대 정치 박해로 악명 높은 콜리마 굴라크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기 때문”



2015년 9월 5일 블라디보스토크 중심부 코라벨나야 해안로에 설치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동상 ⓒ RIO

땅에 입을 맞추며 극적인 장면을 선보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가단이 아닌 블라디보스토크에 작가의 귀국과 관련된 기념비가 조성된 일은 지금 생각해 봐도 다소 의외다.

솔제니친 동상 철거 논란

2015년 9월 5일 블라디보스토크 중심부 코라벨나야 해안로에 이고리 푸시카료프 블라디보스토크 시장과 솔제니친의 큰아들 예르몰라이가 참석하고 현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솔제니친 동상이 성대하게 제막됐다.[15] 당시 솔제니친 동상 제막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도시 역사에 러시아 대문호가 남긴 커다란 발자취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기억 보존 사업이었다. 특히, 이 동상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해안로에 설치되어 눈에 잘 띄는 데다가 주변에 다른 기념비들이 몰려 있어 '열린 소통'이라는 동상 설계 취지에도 잘 부응했다. 그러나 제막 이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9월 8일 한 지역민이 '유다'라고 적힌 팻말을 기념비에 걸어 놓음으로써 제막 의미를 폄하하고 훼손했다.[16]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념비 훼손자는 '러시아연방 레닌주의·공산주의 청년 연합' 블라디보스토크시 위원회 제1서기이자 연해주 지방 의회 의원 보좌관인 막심 신카렌코였다. 게다가 신카렌코는 1년 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스탈린 동상 설치를 추진했으나 실패했다.[17]

> "솔제니친 동상 제막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도시 역사에 러시아 대문호가 남긴 커다란 발자취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기억 보존 사업"

의미심장하게도 신카렌코가 솔제니친 동상에 가한 훼손 시도는 십여 년 전 만델시탐 동상에 가해진 수많은 훼손과 파괴 행위에 담긴 정치적 의도나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 동상 훼손자들이 볼 때 솔제니친도 만델시탐과 마찬가지로 조국의 어두운 면만 들춰내 모욕했고, 체제에 도전했던 반애국의 상징이었다. 게다가 이들에게 솔제니친은 조국을 배신하고 서방으로 넘어가 적들에게 국가 기밀을 넘겨 소련 해체 빌미를 제공한 민족 반역자로 낙인찍혔다.[18] 더 흥미로운 점은 2026년 10월 20일 솔제니친 동상이 현재 자리에서 철거되어 앞서 언급한 '믿음과 소망의 소공원'으로 이전됐다가 하루 만인 21일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과정에서 30여 년 전 블라디보스토크 역사에 새겨진 솔제니친의 문화적 기억이 고스란히 재소환됐을 뿐 아니라, 이곳에 설치된 그의 동상을 둘러싼 논란까지 재점화했다는 것이다.[19] 솔제니친 동상을 이전하기로 한 이유 중 하나는 동상에서 가까운 러시아 태평양함대 지휘부와 재향군인회가 동상 위치가 성격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데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조국을 비판해 추방당한 반체제 인사의 동상이 군함과 참전용사 기념물 사이에 서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솔제니친은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것이 아닌데, 선창에 그의 동상을 설치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20] 이와 함께, 2023년 9월에는 안드레이 구크라는 사람이 솔제니친 동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가 곧이어 기각된 바 있다.[21]

이런 배경에서 그로부터 3년여 후인 지난 10월 21일 솔제니친 동상은 결국 철거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졌지만, 단 하루 만에 원상복귀했다. 주된 이유는 동상이 수용될 새로운 장소가 동상 크기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졸속 행정과 예산 낭비라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고, 동상 철거와 이전 배경에 소비에트 체제에 비판의 화살을 날렸던 솔제니친에 대한 기억을 공공장소에서 지우려는 모종의 의도가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심과 지적도 나왔다.[22] 이와 함께, 2018년 12월 11일 솔제니친 탄생 100주년에 맞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18년 12월 11일 모스크바 타간카 지역에 제막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동상 ⓒ RIO

친히 참석한 가운데 모스크바 타간카 지역에 성대하게 제막한 작가의 동상에는 지금까지 어떤 훼손 시도도 보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그의 동상은 훼손되고 철거되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묘한 대조를 이룬다. 어쨌든, 경유지로서 블라디보스토크의 문화적 기억에서 중요한 일부를 형성하는 솔제니친 동상을 둘러싼 논란은 러시아 사회에서 솔제니친의 존재와 의미를 둘러싸고 끊이지 않는 의견 분열을 축소판처럼 반영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현재 임시로 제자리에 돌아온 솔제니친 동상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1 “От загранпаспорта до мангустов: путешествие Антона Чехова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https://primamedia.ru/news/1673034/

2 Иван Егорчев. “Чехов и Владивосток.” https://chehov-lit.ru/chehov/bio/egorchev-chehov-i-vladivostok.htm

3 같은 곳.

4 같은 곳.

5 Осип Мандельштам. «Мы живем, под собою не чуя страны...» https://slova.org.ru/mandelshtam/mi_zhivem_pod_soboiu_ne_chuya_strani/

6 만델시탐의 체포와 블라디보스토크 이송, 이곳에서 사망에 관한 이야기는 위키피디아 자료 참조. https://ru.wikipedia.org/wiki/Памятник_Мандельштаму_(Владивосток)

7 “Сквер Веры и надежды открыл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https://primamedia.ru/news/375789/

8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новь открыт памятник великому русскому поэту Осипу Мандельштаму.” https://www.svoboda.org/a/24117108.html

9 https://en.wikipedia.org/wiki/Osip_Mandelstam

10 “«Живой Мандельштам» – проект нового памятника поэту.” https://voplit.ru/project/memory/

11 “Памятник Осипу Мандельштаму открыл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день смерти поэта.” https://ug.ru/pamyatnik-osipu-mandelshtamu-otkryli-vo-vladivostoke-v-den-smerti-poeta/

12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Осипа Мандельштама.” https://primamedia.ru/news/115279/

13 “Ровно 30 лет назад Александр Солженицын вернулся в Россию после 20 лет изгнания.” https://moskvichmag.ru/lyudi/rovno-30-let-nazad-aleksandr-solzhenitsyn-vernulsya-v-rossiyu-posle-20-let-izgnaniya/

14 “Солженицын из бетона. Как Владивосток встречал знаменитого изгнанника.” https://www.youtube.com/watch?v=QltidZDHGjo

15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сквернен памятник Солженицыну.” https://www.currenttime.tv/a/27232942.html

16 “Житель Владивостока водрузил табличку с надписью «Иуда» на памятник Солженицыну.” https://lenta.ru/news/2015/09/08/iuda/

17 https://ru.wikipedia.org/wiki/Памятник_Солженицыну_(Владивосток)

18 “«Уважаемые, вы все в аду». За что Солженицына не переваривает ни власть, ни оппозиция.” https://prosleduet.media/details/alexandr-solzhenitsyn/

19 “Перемещенное лицо.” https://novayagazeta.ru/articles/2026/03/07/peremeshchennoe-litso

20 ““Символическая месть эмигрантам”. Как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ереставляют памятник Солженицыну.” https://www.svoboda.org/a/kak-vo-vladivostoke-perestavlyayut-pamyatnik-solzhenitsynu/33883216.html

21 “Житель Тынды объяснил, почему требует демонтировать памятник Солженицыну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https://primamedia.ru/news/1625719/

22 “‘Один день Александра Исаевича.’ Соцсети – о памятнике Солженицыну.” https://www.svoboda.org/a/odin-denj-aleksandra-isaevicha-sotsseti-o-pamyatnike-solzhenitsynu/33881846.html

제국의 황혼
달러 시스템의 종말

미하일 하진 경제평론가·전 러시아 대통령실 경제국 부국장

오늘날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브레턴우즈 체제의 핵심 국제기구에 공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경제 부처 관료들이나 주요 국책 연구 기관들 역시 미국과 유럽의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주류 신고전학파 계량경제학과 통화주의 모델을 금과옥조처럼 신봉하며 정책을 편다.

그러나 러시아 지식인 사회의 이면에는 구소련 시기부터 엄격하게 축적되어 온 독특하고 강력한 '정치경제학 학파'의 맥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필자와 동료들(올레크 그리고리예프, 안드레이 코뱌코프 등)은 1990년대 말부터 서구의 금융 자본주의가 걷고 있는 궤적을 추적하며, 이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수밖에 없음을 학술적으로 증명해 왔다.

이것은 감정적인 반미주의나 막연한 철학적 비판이 아니다. 철저하게 실제 산업 통계와 실물 화폐의 흐름, 그리고 산업 간의 연관 관계를 추적한 전문적인 거시경제 분석의 산물이다. 서구의 금융 엘리트들과 주류 학계가 복잡한 수학 공식 뒤에 교묘하게 숨겨둔 세계 달러 경제의 치명적인 모순을, 우리 러시아 경제학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키고 현실에서 검증해 온 '5대 핵심 연구 성과'를 통해 상세히 밝힌다.

제1의 성과: 1981년 레이거노믹스의 사기극

'땀 흘려 번 소득이 아닌, '빚내서 소비하기'로 지탱해 온 40년 번영의 환상'

우리 러시아 정치경제학자들이 밝혀낸 첫 번째 중대한 학문적 성과는 1980년대 이후 서구 자본주의가 누려온 화려한 번영의 실체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행정부의 출범(레이거노

믹스)과 함께 시작된 '인위적인 민간 수요 부양의 덫'이었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이다.



1981년 7월 세금 인하 계획을 발표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 위키피디아

자본주의의 고전적이고 건강한 순환 구조에서 가계의 소비 지출은 스스로 땀 흘려 일해서 번 '실질 가처분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남은 잉여는 저축되어 기업의 생산적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미국 경제는 생산성이 정체되고 물가만 치솟는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전대미문의 수렁에 빠졌다.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윤율을 끌어올릴 수 없게 되자, 워싱턴과 월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대단히 위험하고 치명적인 처방을 꺼내 들었다. 실질 소득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데도, 가계에 무차별적으로 빚을 지게 만들어 억지로 물건을 사게 만드는 '신용 팽창 메커니즘'을 가동한 것이다.

이 거대한 빚잔치를 가능하게 한 핵심 지렛대가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기준금리 인하'였다.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1981년 연 18~20%까지 끌어올렸던 기준금리는 이후 앨런 그린스펀과 벤 버냉키 시대를 거치며 계단을 밟아 내려가듯 줄기차게 하향 조정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역사상 전례가 없던 '0%'(제로금리)에 도달했다.[1] 대출 이자가 공짜 수준으로 저렴해지자, 실질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던 미국 시민들은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을 한도 끝까지 긁어모아 소비를 이어갔다.

그 결과 1981년 미국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약 60% 수준에 불과했으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직전에는 무려 130%를 돌파했다.[2] 반면 1970~80년대 초반만 해도 10% 안팎을 꾸준히 기록하던 미국인들의 개인 저축률은 2~3%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으며, 하위 소득 계층의 실질 현금 흐름 저축률은 사실상 마이너스로 떨어졌다.[3]

우리 연구진이 2000~01년에 걸쳐 미국의 1998년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 국가 경제 내 모든 산업이 원자재와 재화를 어떻게 서로 주고받는지 기록한 거대 경제 지도)를 정밀 분석했을 때 마주한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당시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무려 20% 이상이 이미 정상적인 생산과 소득의 순환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통화 증발과 가계의 부채 증가로 떠받쳐진 '인위적인 가짜 수요'였다는 점이다.[4]

199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천연자원, 헐값의

> "당시 미국 GDP의 무려 20% 이상이
> 정상적인 생산과 소득의 순환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통화 증발과
> 가계의 부채 증가로 떠받쳐진 '인위적인 가짜 수요'"

숙련 노동력, 그리고 3억 명이 넘는 새로운 소비 시장이 달러 경제권으로 일거에 흡수되지 않았더라면, 미국의 이 위험천만한 빚더미 모델은 이미 1990년대 중반에 파탄을 맞이했을 것이다. 소련 해체의 과실로 10년의 시간을 벌었을 뿐, 부채로 연명하는 본질적 모순은 단 1 mm도 해결되지 않았다.

제2의 성과: 구조적 불균형과 '인플레이션형 연명'의 악순환

'공황의 청산을 거부하고 돈을 찍어내 틀어막은 대가'

우리 학파의 두 번째 성과는 현재의 세계적 위기가 단순히 몇 년 주기로 오고 가는 통상적인 경기 순환적 불황이 아니라, 가계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유지해야 하는 '지출' 사이의 간극이 더는 메워질 수 없을 만큼 벌어진 '구조적 위기'임을 명확히 규명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과도하게 쌓인 부채 거품은 주기적으로 터지면서 부실기업이 청산되고 가계 빚이 장부에서 지워지는 뼈아픈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1929년 월스트리트의 폭락으로 촉발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미국과 전 세계는 국가가 창고에 보유한 금의 무게만큼만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금본위제'의 규율 아래 묶여 있었다.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종이돈을 윤전기에서 찍어낼 수 없었으므로, 부채 거품이 터지자,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물가가 무너졌으며 실질 GDP가 30% 이상 증발하는 처참한 '디플레이션형 공황'이 엄습했다.[5]

그러나 1971년 리처드 닉슨 행정부가 달러와 금의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린(금 태환 중지) 이후, 미국 연준은 전혀 다른 속임수를 쓸 수 있게 됐다.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부채 거품이 터지려 하는 위기의 순간마다, 시스템의 환부를 도려내는 디플레이션 청산 대신 천문학적인 화폐를 찍어내어 거품을 다시 부풀리는 '인플레이션형 연명 시나리오'를 고착화한 것이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8,500억 달러 안팎에 머물던 미국의 본원통화(중앙은행이 조폐창을 통해 직접 공급한 순수 현금 뭉치)는 세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QE)를 거치며 2014년



통화 총계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약 4조 달러로 4배 이상 폭증했다.[6] 초기에는 이 막대한 유동성이 일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월스트리트의 금융 자산(주식, 채권, 파생상품)이라는 격리 체임버 안에 갇혀 있어서 초인플레이션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국면에 이르러 연준과 미국 정부는 마지막 선을 넘었다. 금융기관을 거치는 간접 지원에 머물지 않고, 연방정부의 재정을 동원하여 일반 대중의 은행 통장에 수조 달러의 현금을 직접 꽂아 넣어준 것이다. 댐 안에 갇혀 있던 통화가 마침내 실물 소비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자, 전 세계를 뒤흔든 파괴적인 인플레이션이 폭발했다. 미국 정부가 산정 방식을 교묘히 바꾼 공식 통계를 걷어내고 1980년대 이전의 엄밀한 장바구니 체감 지표로 환산하면, 미국의 실제 체감 물가상승률은 이미 10~12%에 육박한다.[7] 돈을 찍어내 위기 발발을 뒤로 미룰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다음번에 치러야 할 위기의 잠재적 파괴력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팽창했다.

제3의 성과: 기축통화의 역설과 제조업의 공동화

'달러 패권이라는 독이 든 성배: 생산 비중은 15%, 소비 비중은 30%'

세 번째 성과는 "미국이 전 세계의 기축통화(세계 표준 결제 통화) 지위를 누리는 대가로, 정작 자국의 실물 제조업 기반은 처참하게 파괴당했다"라는 이른바 '기축통화의 역설'을 수치로 규명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뉴햄프셔주에서 브레턴우즈 회의가 열렸을 당시, 미국은 전 세계 제조업 생산의 40~50%를 홀로 담당하던 압도적인 실물 공업 강국이었다.[8] 그러나 전 세계에 달러를 결제 및 준비자산으로 유통하려면 필연적으로 미국이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해서 기록하며 전 세계에 달러를 뿌려줘야만 했다(경제학에서 말하는 '트리핀의 딜레마'다).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권력을 쥐게 되자, 미국 내부에서는 피땀 흘려 공장을 짓고 기계를 돌려 물건을 만드는 일보다는 값싸게 조달한 자본으로 금융 투기를 벌이는 일이 수십 배는 더 손쉬운 부의 축적 수단이 됐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오늘날 미국의 실물 생산 규모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전 세계의 약 15% 남짓으로 쪼그라들었다.[9] 반면 전 세계가 땀 흘려 만든 최종 완제품과 서비스를 기축통화 특권을 앞세워 수입해 소비하는 비중은 여전히 전 세계의 약 28~30%에 달한다.[10]

물건을 만들어내는 물리적 능력은 전 세계의 15%에 불과한 나라가 단지 기축통화 종이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세계 생산물의 30%를 먹어 치우고 있는 이 기형적인 불균형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이미 미국 재무부 장기 국채에 대한 외국 중앙은행들의 매수세는 꺾이기 시작했고, 하루짜리 초단기 콜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연준의 정책금리 조작은 시장의 장기 채권 금리를 통제하는 데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외치며 해외로 나간 공장들을 강제로 불러들이려 했던 절박함의 기저에는 바로 이 처참한 실물 생산의 붕괴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다음 네 번째 성과가 명백히 증명하듯, 월스트리트 중심의 달러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몽상에 불과하다.

> “미국의 연방정부, 비금융 기업, 가계의 빚을 모두 합친 국가 총부채 비율은 현재 GDP 대비 350% 안팎이라는 임계치에 도달”

제4의 성과: 금융 자본주의의 탐욕과 산업의 황폐화

‘돈을 찍어낼수록 공장은 문을 닫는 자본주의의 철칙’

네 번째 결과는 통화 증발에 기반하여 성장하는 경제 체제에서는 실물 생산 부문의 이윤율보다는 금융 투기 부문의 이윤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산업 공동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경제적 철칙을 증명한 것이다.

자본은 수익률이 단 1%라도 더 높은 곳으로 흐르는 생리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공장을 짓고 원자재를 확보하며 노동자를 고용해 제품을 만드는 실물 제조업은 환경 규제, 노사 갈등, 공급망 리스크 등 온갖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이윤율도 기껏해야 한 자릿수에 머문다. 반면 중앙은행이 값싸게 풀어주는 막대한 유동성을 지렛대 삼아 주식, 부동산,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며칠, 몇 달 만에 수십, 수백 퍼센트의 장부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의 기업과 금융 자본은 골치 아픈 제조업 공장들을 인건비가 싸고 노동 조건 규제가 헐거운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등지로 전부 내던져버렸다(오프쇼어링). 미국 본토에 남은 대기업들조차 차세대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에 돈을 쓰기보다는 부풀려진 주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자사주 매입) 금융 공학에 혈안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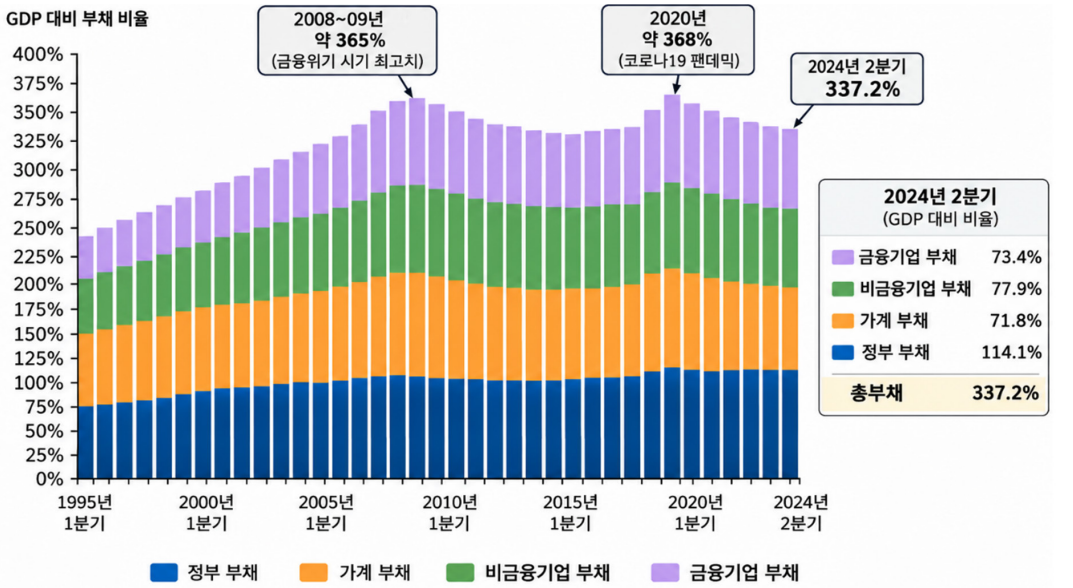
월스트리트의 대형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들은 아무런 실물 가치도 없는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의 시가총액을 미국 GDP 통계에 반영하며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력한 서비스 중심 경제’라고 선전해 왔다. 하지만 이는 컴퓨터 모니터 위에 찍힌 숫자에 불과한 ‘가공의 경제(Fictitious Economy)’다. 석유와 천연가스, 곡물, 반도체, 철강 같은 ‘진짜 물리적 재화’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을 잃어버린 경제는 거대한 공급망 충격이나 지정학적 위기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제5의 성과: 총부채 350%의 감옥과 금융 엘리트의 정치적 독점

‘시스템의 유일한 해법은 ‘빚 탕감’이지만, 지배 엘리트가 절대 허락하지 않는 이유’

다섯 번째이자 가장 본질적인 성과는 현재 미국 경제가 겪고 있는 거시경제 통제력 상실이 주류 학자들이 떠드는 복잡한 계량 모델 때문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총부채 규모’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서 비롯됐음을 규명한 것이다.

래리 서머스나 카르멘 라인하트 같은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난해한 수학 공식과 복잡한 이론을 쏟아내며 대중의 눈을 가리지만, 본질은 너무나도 단순한 산술에 불과하다. 미국의 연방정부, 비금융 기업, 가계의 빚을 모두 합친 국가 총부채 비율은 현재 GDP 대비 350% 안팎이라는 임계치에 도달했다.[11]



GDP 대비 총부채(정부/가계/기업) 비율 © Harvard Growth Lab Working Paper Series No. 252

부채가 이 지경으로 불어나면 중앙은행은 진퇴양난의 감옥에 갇힌다.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 정부는 천문학적인 국채 이자 부담으로 재정이 파탄 나고 한계 기업과 가계는 연쇄 도산하며, 반대로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통제 불능으로 치솟기 때문이다.

이 거대한 빚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경제학적 정답은 무엇인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가계와 국가의 악성 부채를 대대적으로 탕감(Debt Write-off)하고 실물 생산 능력에 맞춰 시스템 전체의 장부를 '리셋'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내부의 '정치적 권력 구조' 때문에 결코 일어날 수 없다.

1913년 연준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미국 전체 자산 중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5% 내외였지만, 오늘날에는 70%를 훌쩍 넘어섰다.[12] 누군가의 '빚(부채)'은 곧 월스트리트를 지배하는 금융 과두 엘리트들에게는 막대한 현금 흐름과 이자를 낳는 '핵심 자산'이다. 빚을 탕감하라는 것은 미국을 막후에서 움직이는 금융 엘리트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배 권력을 스스로 불태우라는 말과 같다.

서구의 주류 경제학은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엘리트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금기시하며 '음모론'으로 몰아세우지만, 마르크스와 레온티예프의 전통을 잇는 정치경제학에서는 권력의 역학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밀하고 현실적인 과학이다. 금융 엘리트들

> "악성 부채를 대대적으로 탕감(Debt Write-off)하고
> 실물 생산 능력에 맞춰 시스템 전체의 장부를 '리셋'하는 것은
> 미국 내부의 '정치적 권력 구조' 때문에 결코 일어날 수 없어"

이 워싱턴의 의회와 백악관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한, 미국은 부채의 축소를 거부한 채 시스템의 총체적 파국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맺음말: 거대한 분할의 시대, 실물 경제의 가치를 다시 묻다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 이후 80여 년간 세계를 지배해 온 단일 달러 기축통화 체제는 이제 명백한 역사의 종착역에 다다랐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지정학적 충돌, 러시아에 대한 전례 없는 금융 제재,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분열은 우연한 돌발 사건이 절대 아니다. 서구의 금융 지배층이 자국 경제의 회복 불가능한 부채 문제를 은폐하고 채권자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갈등을 부추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세계 경제는 이제 단 하나의 화폐(달러)가 전 세계를 획일적으로 지배하던 일극 체제를 지나, 독자적인 실물 에너지, 원자재 자원, 그리고 강력한 제조업 생산 설비를 갖춘 여러 개의 '지역 화폐 경제 블록'으로 분할되는 거대한 대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의 컴퓨터 화면에 찍히는 허황된 금융 장부상의 시가총액을 걷어내고, 에너지와 식량, 그리고 공장에서 땀 흘려 만들어내는 '진짜 물리적 생산 능력'의 가치를 직시하는 국가만이 앞으로 닥쳐올 글로벌 대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Federal Funds Effective Rate [FEDFUNDS]." FRED Economic Data, 1981-2008. (https://fred.stlouisfed.org/series/FEDFUNDS)

2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Household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Debt Securities and Loans; Liability, Level [CMDEBT] / Disposable Personal Income [DPI]." FRED Economic Data, 1981-2008. (https://fred.stlouisfed.org/series/TDSP)

3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Personal Saving Rate [PSAVERT]." FRED Economic Data, 1980-2008. (https://fred.stlouisfed.org/series/PSAVERT)

4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Historical Benchmark Input-Output Accounts of the United States." 1997/1998; Кобяков А. Б., Хазин М. Л. *Закат империи доллара и конец "Pax Americana"*. М.: Вече, 2003.

5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Current-Dollar and 'Real' Gross Domestic Product, 1929-1933."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NIPA) Tables.

6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Monetary Base; Total [BOGMBASE]." FRED Economic Data, 2008-2014. (https://fred.stlouisfed.org/series/BOGMBASE)

7 Shadow Government Statistics (ShadowStats). "Alternate Inflation Charts: SGS Alternate CPI 1980-Based." 2021–2024. (http://www.shadowstats.com/alternate_data/inflation-charts)

8 Maddison Project Database.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 1–2008 AD." Groningen Growth and Development Centre (GGDC), 2010.

9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Gross Domestic Product Based on Purchasing-Power-Parity (PPP) Share of World Total." October 2023.

10 World Bank. "Households and NPISHs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 of World Total)."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22-2023.

11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IIF). "Global Debt Monitor: Total Debt-to-GDP Ratios (Household, Corporate, Government, Financial Sector)." Washington, D.C., 2023-2024;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Total Credit to Non-Financial Sector and General Government." 2023.

12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inancial Accounts of the United States - Z.1: Balance Sheet of Households and Nonfinancial Assets vs. Financial Assets." 1945-2023; Goldsmith, R. W. *A Study of Saving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5.

불굴의 의사 니콜라이 부르덴코
소련 신경외과를 개척하다

글 _ 올가 댜트코 러시아 역사가
번역 _ 이태훈 충북대학교 러시아언어문화학과 교수

니콜라이 부르덴코는 소련 신경외과의 창시자이자 소련 의학아카데미의 초대 원장으로 소련 의료 체계의 발전을 이끈 인물이다. 러·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전선에서 부상병을 치료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붉은 군대의 수석 외과의사로 군 의료를 이끌었다. 대학과 병원에서는 연구와 교육에 힘쓰며 신경외과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2026년 탄생 150주년과 서거 80주년을 맞는 그의 생애는 의학 연구와 환자 치료, 국가 의료 체계 구축에 헌신한 삶으로 제정 러시아에서 소련으로 이어지는 의학의 역사를 보여준다.

부르덴코가 의학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농노 출신으로 독학을 통해 배움의 길을 넓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그는 신학교를 마친 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학부 진학을 택했다. 낯선 도시에서 생활비를 벌며 공부했고,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대학에서 제적되기도 했다. 유리예프 제국대학교로 옮긴 뒤에는 러시아 외과학의 거장 니콜라이 피로고프의 저술을 접하며 야전외과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진료에 참여하고 러일전쟁에 자원한 경험은 의학 이론을 실전과 연결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교수로서도 실제 진료 사례를 풍부하게 활용한 강의로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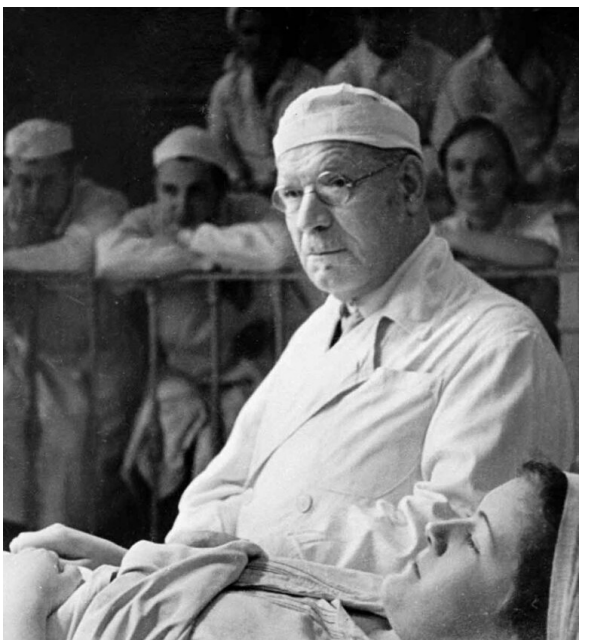
부르덴코가 전장에서 주목한 것은 수술 기법만이 아니었다. 부상병을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일, 복부나 두부에 부상을 입은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체계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였다. 환자의 생존은 의사의 기술뿐 아니라 치료를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는

지에도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군 의료의 조직과 운영을 개선하는 한편 뇌종양과 신경 손상 등의 수술을 연구하며 신경외과의 전문화에도 이바지했다. 청력을 완전히 잃고 뇌졸중으로 언어 능력까지 상실한 뒤에도 아내 마리야의 도움으로 소통을 이어가며 연구와 진료에 복귀했다. 이번 호 「역사 프리즘」은 《루스키 미르》 2026년 6월호에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니콜라이 부르덴코의 생애를 살펴본다. 배움을 향한 열망을 이어 온 가족의 역사와 가난했던 의학도 시절, 세 차례의 전쟁에서 쌓은 의료 경험,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 청력 상실과 거듭된 뇌졸중 속에서도 계속된 활동을 따라가며 한 의사의 삶이 시대의 격변과 어떻게 맞물렸는지 알아본다. 아울러 환자를 치료하는 실천이 의학 지식 축적과 후학 양성, 의료 체계 발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도 주목한다. 이를 통해 전쟁의 역사를 의료진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책임과 업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註)

글을 깨친 농노의 후손

니콜라이 부르덴코는 1876년 6월 3일 펜자현 니즈니로모프군의 카멘카 마을에서 태어났다. 니콜라이의 할아버지 카르프 부르덴코는 농노 출신이었다. 카르프는 어린 시절 교회 사찰지기에게서 글을 배웠고 그 집에 있는 책을 모조리 독파했다. 카르프 부르덴코가 책을 좋아하고 학식이 풍부하다는 소문은 마침내 지주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지주는 재능 있는 청년을 자신의 서기로 고용하고 개인 서재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했다. 청년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책과 잡지를 읽었으며 특히 농업에 관한 서적에 깊은 흥미를 보였다. 그의 능력을 눈여겨본 지주는 결국 카르프 부르덴코를 자기 영지 관리인으로 임명했다.

농노제가 폐지된 뒤 카르프는 니즈니로모프에서 상인들의 사업을 대리하는 일을 맡았다. 그의 아내는 드레스를 만들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름난 양장사가 됐다. 집안 형편이 넉넉해지면서 카르프는 오랫동안 품어 온 꿈을 이룰 수 있었다. 바로 과수와 채소를 재배하는 일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농장은 명성을 얻었고, 펜자현의 다른 지역에서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니콜라이 부르덴코 ⓒ《루스키 미르》

니콜라이 부르덴코의 아버지 닐 역시 어린 시절부터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가족은 지주의 허락을 어렵게 받아 닐을 군립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그는 '감자와 메밀, 버터와 달걀'을 학비 대신 내며 공부했다. 학업을 마친 닐 부르덴코는 영지의 서

기가 됐다. 청년은 끊임없이 독학하며 측량과 제도에 관한 지식을 익혔고, 토지 문제에 관한 법률도 철저히 공부했다. 이렇게 쌓은 지식은 훗날 큰 도움이 됐다. 농노제가 폐지된 뒤 그는 지주와 소송을 벌이는 농민들의 소송대리인과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여러 재판에서 성공을 거뒀다. 덕분에 지역에서 큰 명성을 얻었고, 군 지방자치기구인 젬스트보의 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학창 시절

니콜라이 부르덴코는 다섯 살에 젬스트보가 운영하는 농촌학교에 입학해 여덟 살 반에 졸업했다. 하지만 집안에는 아들의 학업을 계속 지원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방법을 찾아냈다. 1886년 니콜라이를 펜자로 데려가 종교학교에 입학시킨 것이다. 종교학교를 졸업한 소년은 신학교에 진학했다. 신학교 과정을 마친 니콜라이 부르덴코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신학아카데미 입학시험에 합격했지만 진학하지 않았다. 대신 톰스크 제국대학교 의학부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가족은 니콜라이의 무모한 결정에 한마음으로 반대했다. 아버지는 그가 굶어 죽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가난과 고생에 시달릴까 봐 눈물을 흘렸다. 니콜라이도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결심을 바꿀 생각은 없었다. 결국 가족 모두에게 용서를 구한 뒤 짐을 챙겨 집을 떠났다.

니콜라이 부르덴코는 지인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 생활비조차 없이 공부해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뒤이어 할머니마저 숨을 거뒀다. 한때 화목했던 대가족도 뿔뿔이 흩어졌다. 부르덴코는 더 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방학 때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모든 과목에서 최고 성적을 받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부르덴코는 몇 주 동안 밤잠을 설쳐 가며 공부했다. 그 결과 연간 500루블의 장학금을 받게 됐다.



펜자주에 있는 니콜라이 부르덴코 자택 박물관. 부르덴코는 1886년부터 1897년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루스키 미르》

부르덴코는 톰스크 제국대학교에서 주요 의학 분야의 이론을 폭넓게 익히고 체계적인 임상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훗날 외과의사가 될 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초 러시아에서는 혁명운동이 거세지고 있었다. 톰스크에서도 젊은 학생들이 정부에 반대하

“신학교 과정을 마친 니콜라이 부르덴코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신학아카데미 입학시험에 합격했지만,
톰스크 제국대학교 의학부에 들어가기로 결심해”

> “부르덴코는 자신의 삶을 야전외과학에 바치기로 결심해”

고 대학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르덴코도 그중 한 명이었다. 1901년 학생 파업에 참여한 뒤 대학에서 제적됐다. 하지만 그의 재능과 학업 성적을 높이 평가한 교수들의 탄원 덕에 복학할 수 있었다.

같은 해 부르덴코는 톰스크 제국대학교 총장에게 유리예프 제국대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오늘날 에스토니아 타르투대학교로 알려진 이곳은 러시아 의학계의 거장 니콜라이 피로고프가 과거에 교수로 재직했던 대학이었다. 피로고프의 사상과 그가 확립한 전통은 이제 막 의학의 길에 들어선 부르덴코의 학문적 관심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피로고프는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의 경험을 연구해 참전 군대의 의료 지원 체계를 분석하고 교전국 군 의료기관 운영의 장단점을 정리했다. 부르덴코는 피로고프의 엄격한 논리에 깊은 인상을 받아 이런 원칙을 러시아군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야전외과학에 바치기로 결심했다.

의학부에서 3년간 공부하며 어느 정도 실무 경험까지 쌓은 부르덴코는 당시 발진티푸스와 장티푸스가 맹위를 떨치던 헤르손현으로 향했다. 그는 질병이 확산하는 원인을 밝히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관련 문헌을 읽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분석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면서 경험 많은 의료보조원들을 만나 간단한 외과 처치법도 배웠다. 유리예프로 돌아온 부르덴코는 유리예프 학생회를 이끌게 됐다. 또한 제1차 국가두마 선거에서 지역 선거인단의 일원으로 선출됐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했다. 러시아 적십자사는 전선에 파견할 이동식 의료부대를 조직했다. 유리예프에서도 의사와 의료보조원, 의학부 4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의료부대가 만들어졌고 부르덴코도 합류했다. 1904년 4월 부르덴코는 대학 공부를 중단하고 의사 보조원으로 전선에 나갔다. 최전방과 응급처치소에서 위생병과 의료보조원, 의사로 활동했다. 그는 밤낮으로 병사들 곁을 지켰고 포화 속에서 부상병들을 구해 냈다. 이런 용맹한 행동을 인정받아 성 게오르기 십자 훈장을 받았다. 전투 중에는 폭발 충격으로 부상을 입었는데 이로 인해 훗날 청력을 잃게 됐다.

1904년 11월 부르덴코는 유리예프 제국대학교로 돌아왔고 1906년 여름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시험에 합격했다. 학위를 받은 뒤에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연구 주제는 해부학과 생리학, 조직학, 약리학, 생화학 등 여러 의학 분야에 걸쳐 있었다. 1909년 부르덴코는 논문 심사를 통과하고 의학박사



니콜라이 부르덴코 자택 박물관의 집무용 책상 ⓒ《루스키 미르》

> “동료들은 부르덴코의 업무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

학위를 받았다. 이듬해 여름 유리예프 제국대학교 평의회는 그를 외과학 및 외과 임상학 강사로 임명했다.


니콜라이 부르덴코 ⓒ《루스키 미르》

모두가 존경하는 교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니콜라이 부르덴코는 전선에 자원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했다. 이 시기 그의 활동은 러시아 군진의학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동료들은 부르덴코의 업무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응급처치실에서 생활하며 나무 소파나 의자에 누워 잠을 청했다. 겉으로는 엄격하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동료들과 환자들은 그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그의 따뜻한 마음속에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다.

1917년 말 부르덴코는 유리예프 제국대학교 평의회에서 외과 임상학 정교수로 선출됐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서 교수로 활동할 수 없었다. 독일군이 유리예프를 점령하면서 대학의 모든 활동이 멈췄기 때문이다. 독일군 사령부는 러시아인 교수와 강사들을 모두 해임했다. 하지만 부르덴코만 예외로 학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부르덴코는 독일 측의 제안을 거절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독일군이 해임한 러시아인 교수들은 1918년 보로네시에 새로 설립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니콜라이 부르덴코도 보로네시대학교에서 같은 분야의 연구를 이어 나갔다. 그는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풍부한 실제 사례와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그의 강의에는 청중이 많이 몰렸다.

1921년 10월 부르덴코는 직업교육총국 의학부의 결정에 따라 제1모스크바국립대학교 수술외과학 교수로 선임됐다. 보로네시의 동료들은 크게 아쉬워했다. 대학 측은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는 핑계로 온갖 구실을 내세워 무려 2년 동안 그의 이임을 미뤘다. 그러는 사이 모스크바에서 임용 결정을 잊어버리기 바랐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보로네시대학교도 그를 보내 줄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부르덴코를 에워쌌다. 그리고 그를 번쩍 들어 올려 어깨에 태우고 행진했다.

붉은 군대의 수석 외과의사

모스크바 이주는 부르덴코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주 외과의사들은 그를 외과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부르덴코는 소련 의료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보건인민위원회 산하 의지·보조기 관련 위원회를 이끌었다. 1939년 1월 부르덴코는

소련 학술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1941년 3월에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외과수술에 관한 일련의 학술 연구로 일급 스탈린상을 받았다.


자기 수술 장면이 담긴 필름을 살펴보는 니콜라이 부르덴코
ⓒ《루스키 미르》

부르덴코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에 매진하는 한편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그에게 감사의 편지가 쏟아졌다. 그리고 부르덴코가 이끄는 신경외과 학파의 명성은 국경을 넘어 널리 퍼졌다. 그의 이름은 유럽과 미국 의학계에서도 널리 알려져 외과의사라면 누구나 아는 인물이 됐다. 세계 각국에서 일반 의사부터 저명한 의학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그의 병원을 찾아왔다.

독소전쟁이 발발하자, 부르덴코는 개전 초기부터 붉은 군대의 수석 외과의사로 임명됐고 생애 마지막까지 이 직책을 맡았다. 대통령도서관 포털에서는 1941년 7월 1일 니콜라이 부르덴코가 연설한 음성 기록을 들을 수 있다. 그는 이 연설에서 러시아 병사들의 용맹함과 소련의 애국정신을 강조했다. "나는 36년 동안 군에서 복무했다. 그동안 러시아 민중의 풍요롭고 한없이 깊은 정신세계를 알게 됐다. (…) 또한 러시아 병사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러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 입은 폭발 충격의 후유증으로 부르덴코는 청력을 서서히 잃어 갔다. 1930년대 말에는 결국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는 그에게 큰 고통을 안겼지만, 업무 능력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육체의 힘이 쇠약해지면 정신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손가락이 단 하나만 남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일해야 한다. 손가락이 모두 온전할 때와 똑같은 열정으로 일해야 한다."

1941년 9월 모스크바 근교에서 전선으로부터 도착한 군 의료열차를 시찰하던 부르덴코는 처음으로 뇌졸중을 겪었다. 상태가 심각해 몸을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게 된 그는 약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옴스크로 후송됐다. 부르덴코는 거울 앞에서 발음 연습을 하며 언어 능력을 회복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음절을 노래하듯 발음하며 다시 말하는 법을 익혔다. 몸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그는 현지 군 병원에서 야전외과학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부르덴코는 자기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군 병원 세 곳에서 일하고 있네. 환자를 진단하



프롤레타리아 사단 장병들과 만나는 니콜라이 부르덴코
ⓒ《루스키 미르》

> “청력을 잃은 부르덴코에게 아내는
>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돼”

고 의료진을 지도하며 수술을 돕기도 하고 직접 집도하기도 하지. 전선에서 시행하는 절단 수술의 후유증도 연구하고 있네….”

부르덴코의 곁을 한결같이 지킨 사람은 아내 마리야였다. 그녀는 남편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줬고 자료를 찾는 일도 도왔다. 비서 역할을 맡는 한편 외국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번역해 주기도 했다. 청력을 잃은 부르덴코에게 아내는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됐다. 전화 통화와 방문객 응대는 물론 각종 회의와 학술대회에서도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다.

1942년 11월 부르덴코는 나치 독일 점령군의 잔학 행위를 조사하는 국가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오룔주와 스몰렌스크주에서 조사를 지휘했으며 카틴 숲에서 독일군이 폴란드군 포로 장교들을 총살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위원회도 이끌었다.

1945년 7월 부르덴코는 두 번째 뇌졸중을 겪으며 그토록 힘겹게 되찾았던 언어 능력을 잃고 또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강인한 체력과 삶에 대한 의지로 병마를 이겨 냈다. 얼마 후 그는 다시 의학학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각종 위원회와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1946년 여름 세 번째 뇌졸중이 그를 덮쳤다. 의식이 또렷했던 그는 자신의 곁에 모인 의료진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넸다. 놀라울 만큼 담담하고 의연한 태도가 담긴 글이었다. “1905년 폭발 충격으로 청력을 잃기 시작했다. 1917년 또 한 번 폭발 충격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1937년에는 청력을 완전히 잃었다. 1941년 여러 전선을 돌아다니며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다. 같은 해 실리셀부르크 인근에서 네바강을 건너던 중 공습을 당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뇌졸중이 찾아왔다. 1945년 뇌졸중을 또다시 겪었다. 이제 나도 일흔 살이다. 죽을 때가 됐다!”

1946년 가을 모스크바의 폴리테크닉 박물관에서 제25차 소련 외과의사대회가 열렸다. 부르덴코는 건강이 악화해 직접 대회를 주재할 수 없었지만, 독소전쟁 당시 전선에서 발생한 총상 치료를 주제로 작성한 그의 발표문이 참석자들 앞에서 낭독됐다. 대회가 끝난 뒤 부르덴코는 작은 종잇조각에 이렇게 적었다. “이 발표문이 나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이다. 다음 대회가 열릴 때까지 나는 살아 있지 못할 것이다.” 그는 1946년 11월 11일 세상을 떠났다.



모스크바에 있는 니콜라이 부르덴코 기념상 ⓒ《루스키 미르》

알프레드 시닛케
고향 없는 음악의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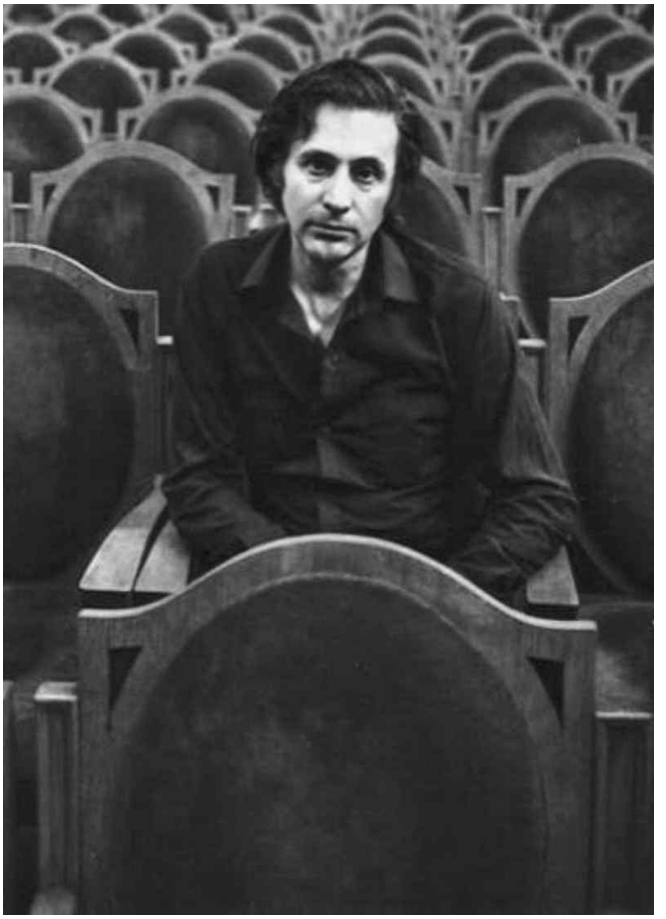
류희윤 러시아 사라토프국립음악원 교수

알프레드 시닛케, 쇼스타코비치 이후의 러시아 아방가르드와 분열된 내면의 음악

2026년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1906~75) 탄생 120주년이다.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음악계는 그의 작품을 다시 조명하면서, 한 작곡가의 예술이 시대의 모순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되묻고 있다.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공존한다. 장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가 하면, 그 이면에서는 불안과 조롱, 슬픔이 고개를 든다. 익숙한 춤곡은 어느 순간 기괴하게 뒤틀리고, 아름다운 선율조차 더는 순수한 아름다움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음악은 한 시대가 내세우는 이상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현실 사이에 놓인 균열을 드러낸다.

알프레드 시닛케(1934~98)는 이 균열을 물려받아 자신만의 언어로 확장한 작곡가다. 쇼스타코비치가 익숙한 형식 안에 의심과 불안을 숨겨 놓았다면, 시닛케는 서로 다른 시대의 음악을 한 작품 안에 불러들였다. 바로크의 선율과 낭만주의의 서정성, 현대음악의 불협화음과 대중음악의 리듬이 그의 작품에서 마주친다.

그의 음악을 듣다 보면 낯선 것보다 익숙한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선율인데, 그것이 놓인 자리는 어딘가 어긋나 있다. 과거의 음악은 돌아오지만, 과거의 모습 그대로 더는 머물지 않는다. 그 익숙함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음악을 듣는 동시에 음악이 기대고 있던 세계까지 의심하게 된다.



알프레드 시닛케 ⓒ 위키피디아

시닛케의 삶에는 여러 세계가 겹쳐 있었다. 독일계와 유대계의 가족적 배경, 빈에서 보낸 어린 시절, 모스크바에서의 음악교육, 소비에트 사회에서 작곡가로 살아간 시간 등. 그 어느 하나도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그의 음악을 출신 배경의 결과로 단순화할 수도 없다. 다만 서로 다른 전통이 한 사람 안에서 만났다는 사실은 그의 음악을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 시닛케는 그 차이를 지우기보다는 서로 다른 것들이 한꺼번에 존재할 때 생겨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 세계 사이에서 태어난 작곡가

알프레드 시닛케는 지금은 사라토프주에 속하는 볼가강 연안의 엥겔스에서 1934년 11월 24일에 태어났다. 당시 이곳은 볼가 독일인 자치공화국의 수도였다. 볼가 독일인은 러시아에 거

> “독일계와 유대계의 가족적 배경, 빈에서 보낸 어린 시절, 모스크바에서 받은 음악교육, 소비에트 사회에서 작곡가로 살아간 시간 등 시닛케의 삶에는 여러 세계가 겹쳐 있어”

주하는 독일계 주민들로, 예카테리나 2세가 18세기 후반에 러시아로 초청한 식민 이주민들의 후손이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볼가 독일계 가톨릭 신자였고, 아버지 해리 시닛케는 유대계 언론인이자 번역가였다. 가족 안에는 독일어와 러시아어,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적 기억이 함께 있었다. 훗날 그의 음악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복수의 정체성은 이미 가족의 역사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인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살아왔지만, 러시아인의 피는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다. 내 안의 대조적인 혈통은 어떤 면에서 나에게 하나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나는 내 안에 독일과 러시아, 두 나라와 연결되는 어떤 친연성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모든 게 어떻게든 서로 연결되어 있다."

무신론이 사회 전반을 휩쓸던 시대의 흐름은 볼가 독일인 자치공화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종교적 전통을 억압하고 가톨릭과 루터교의 흔적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그리고 1941년 볼가 독일인 자치공화국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해체됐다. 독일 국방군이 소련 영토 깊숙이 진격하던 때, 소련 당국은 독일계 주민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했고, 특별 포고령에 따라 볼가 독일인들의 대규모 강제 이주가 시작됐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공동체는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

시닛케의 가족 역시 추방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독일에서 태어났음에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고려됐고, 결국 그의 가족은 엥겔스에 남게 됐다.

그의 가족이 엥겔스를 떠나 빈으로 옮겨 간 것은 아버지의 언론 활동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소련 점령 당국이 발행하던 독일어 신문과 관련된 일을 맡았고, 가족은 1945년 무렵부터 1948년까지 빈에 머물렀다. 시닛케가 본격적으로 음악을 배우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빈에서 어린 소년은 피아노를 배우고 오페라와 연주회를 접했다. 모차르트와 슈베르트의 음악은 교과서 속의 과거가 아니라 실제로 들을 수 있고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다. 훗날 그가 유럽 음악의 전통을 자기 작품 안으로 끌어들였을 때, 그 전통은 단지 악보를 통해 익힌 양식만은 아니었을 것



청년 시절의 시닛케(가운데) ⓒ 위키피디아

> “훗날 그의 이름과 함께 언급되는 폴리스타일리즘(Polystylism)은 서로 다른 시대와 양식의 음악을 한 작품 안에 결합하는 방식”

이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음악은 이미 하나의 살아 있는 세계로 자리 잡고 있었다.

빈에서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1948년 가족은 모스크바로 돌아왔고, 시닛케는 그곳에서 음악 공부를 이어갔다. 1953년 모스크바 음악원에 입학해 작곡과 대위법을 공부했으며, 이후에는 음악원에서 가르치기도 했다. 러시아 음악의 전통과 서유럽의 고전음악, 전후 현대음악의 새로운 실험이 그의 시야 안으로 들어왔다.

그에게 음악의 역사는 서로 분리된 시대의 목록이 아니었다. 오래전에 쓰인 선율도 현재의 음악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낯선 현대음악의 소리도 과거의 전통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문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음악이 만났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였다. 과거의 양식은 보존해야 할 유산인 동시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재료였다.

이런 관심은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작곡 방식으로 발전했다. 훗날 그의 이름과 함께 언급되는 폴리스타일리즘(Polystylism)은 서로 다른 시대와 양식의 음악을 한 작품 안에 결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닛케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 양식을 나열하는 일이 아니었다. 익숙한 선율이 전혀 다른 음악적 맥락에 놓였을 때, 그것이 어떻게 낯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전통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무조건 믿지만은 않는 태도

시닛케의 음악은 서정성과 불협화음, 진지함과 조롱이 한 작품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 그의 음악에서 패러디는 과거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랫동안 권위를 지녀 온 음악적 관습을 낯설게 하면서도, 그 안에 남아 있는 아름다움과 힘을 드러낸다.

1977년에 완성된 「콘체르토 그로소 제1번」은 시닛케의 음악적 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바로크 협주곡을 연상시키는 선율과 현대적인 음향, 서정적인 흐름과 세속적인 춤의 리듬이 함께 등장한다. 특히 탱고를 연상시키는 대목에서 음악은 뜻밖의 표정을 드러내는데, 얼핏 익숙하고 매혹적인 선율이지만, 그 아름다움에는 어딘가 과장된 기색이 있다. 진지하게 흐르던 음악 사이로 불쑥 들어온 탱고는 분위기를 바꾸면서도 앞서 들었던 음악의 기억을 지우지 않는다. 청중은 그 선율을 즐기면서 동시에 묻게 된다. 지금 듣는 아름다움은 진심인가, 풍자인가, 아니면 그 둘이 함께 있는 것인가.

이런 감각은 그의 영화음악 작업에서도 이어졌다. 시닛케는 1970년대부터 영화음악 작곡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엘렘 클리모프의 영화 「고뇌」(1974)를 위한 음악을 작곡하는 등 평생 60편이 넘는 영화의 음악을 썼다. 영화는 생계를 위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장르와 정서를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화면이 보여주는 감정과 음악이 들려주는 감정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평온한 장면에 불안을 더할 수도 있고, 익숙한 풍경을 낯설



작업 중인 시닛케 ⓒ 위키피디아

게 만들 수도 있는 것, 한 장면 안에 상반된 의미가 공존할 수 있다는 감각은 그의 음악적 언어와도 맞닿아 있었다.

환영받지 못한 그의 세계

소련 사회에서 예술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원칙과 공식적인 문화적 기대의 영향을 받았다. 음악 역시 명료한 형식과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요구받았고, 양식의 경계를 흔들거나 하나의 의미로 수렴하지 않는 작품은 곧바로 의심의 대상이 되곤 했다. 예술이 사회의 이상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요구 속에서, 서로 다른 음악적 언어를 충돌시키고 청중의 기대를 흔드는 시닛케의 작품은 기존의 기준으로 쉽게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시닛케의 초기 작품인 오라토리오 「나가사키」(1958)는 그런 정치적 긴장을 보여준다. 원자폭탄 투하를 다룬 이 작품에서 그가 선택한 음악적 표현은 당대의 공식적인 기대와 충돌하며 비판받았다. 주제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가가 심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교향곡 제1번」(1969~1972)은 그 경계를 더 과감하게 흔들었는데, 이 작품에는 재즈와 차이콥스키의 선율이 뒤죽박죽 섞여 있을 뿐 아니라 연주자들이 무대에 들어오고 나가는 움직임

> “서로 다른 음악적 언어를 충돌시키고
> 청중의 기대를 흔드는 시닛케의 작품은 기존의 기준으로
> 쉽게 평가하기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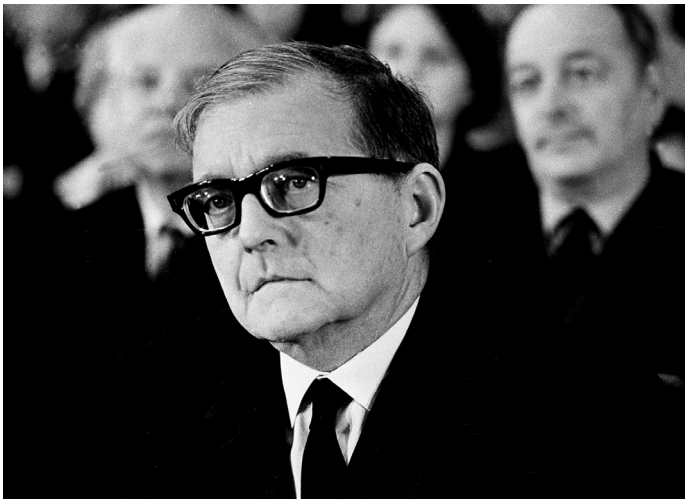
까지도 포함된다. 교향곡의 질서는 온데간데없이 혼란스럽고 불손하게 들리며, 연주회장 자체가 하나의 극적인 공간으로 바뀐다. 청중은 음악을 듣는 동시에 익숙한 연주회장의 규칙이 흔들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이 작품은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에서의 초연을 거절당했고 1974년에야 고리키(현재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겐나디 로즈데스트벤스키의 지휘로 어렵사리 초연됐다.

조국에서 시닛케의 음악은 온갖 비난에 시달렸다. '부르주아적 영향,' '아방가르드라는 깃발 아래 벌어지는 음악적 사보타주,' 심지어 '음악계의 반체제 인사'라는 비난까지도 들어야 했다. 해외 연주 요청은 모스크바 공식 작곡가동맹으로부터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1987년까지 시닛케의 주요 작품은 자국의 연주 무대에서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스탈린 시대와 쇼스타코비치의 존재

시닛케를 가장 가혹하게 박해했던 인물인 티혼 흐렌니코프는 소련 작곡가동맹의 수장으로서 오랫동안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흐렌니코프가 활동하던 제도적 환경은 스탈린 시대에 확립된 문화 통제의 유산과 맞닿아 있었다. 안드레이 즈다노프를 비롯한 당국의 문화정책 담당자들은 예술이 따라야 할 기준을 제시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작품은 비판과 제재의 대상이 됐다.

이런 환경에서 쇼스타코비치의 존재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는 당국의 비판을 받았던 작곡가였으며, 자신의 음악적 언어와 공식적인 요구 사이에서 복잡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다. 시닛케에게 쇼스타코비치는 음악적 선배인 동시에, 예술가가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지킬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인물이었다.



1970년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 위키피디아

"나에게는 작곡가로서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쇼스타코비치가 지닌 영향력이 매우 컸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인물의 외적인 모습과 실제 내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쇼스타코비치라는 인물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끊임없이 의지할

"시닛케에게 쇼스타코비치는 음악적 선배인 동시에,
예술가가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지킬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인물"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 그에게 동의하든 반대하든, 우리는 언제나 그를 의식하고 그를 돌아보았다."

1970년 이후에는 기돈 크레머,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를 비롯한 연주자들이 시닛케의 작품을 외국에서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의 음악은 서유럽에서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1989년에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닛케의 음악 축제에서는 열흘 동안 연주회가 열두 차례 열렸고, 40곡에 달하는 그의 작품이 연주됐다. 연주회는 연이어 매진됐으며 축제는 큰 성공을 거뒀다. 1990년 함부르크를 비롯한 독일의 음악계에서 열린 시닛케의 작품 페스티벌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러시아 출신의 아방가르드 작곡가였던 시닛케의 이름은 국제 음악계에서 점차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어느새 그의 이름은 매진을 보장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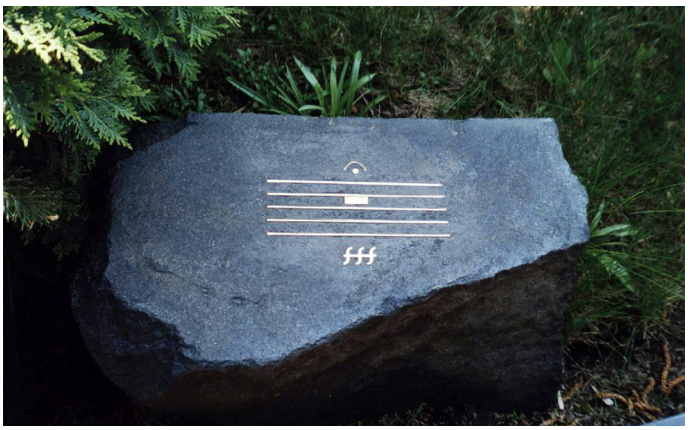
몸이 멈추려 할 때, 음악은 어디로 가는가

시닛케는 1982년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다. 종교에 대한 관심은 이전부터 이어져 왔고, 이후 그의 작품에서도 신앙과 영적인 주제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의 음악에서 종교는 언제나 평온한 위안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신앙의 언어가 등장하는 가운데서도 불안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구원에 대한 갈망과 그것을 쉽게 확신할 수 없는 마음이 한 작품 안에 머문다.

"예전의 나는 유한함과 물질성, 그리고 명확한 결과물에 끌렸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은 일면적이고 심지어 진부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제 나에게 더 큰 영감을 주는 것은 무한함과 불확정성, 그리고 형태의 유동성이다."

1985년 시닛케는 첫 뇌졸중을 겪었다. 의사 중에서 그가 작품 활동을 재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재개 가능성을 믿었던 사람은 아마 아내 이리나뿐이었을 것이다.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과 경제적 궁핍, 권력자들의 적대감, 비평계의 무자비한 평가 속에서도 창작을 이어 온 그에게 질병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시련이었다.



노보데비치 수도원 묘역에 있는 시닛케의 묘비. "쉰다, 오래 그리고 아주 세게"라고 악보 기호가 적혀 있다. © 위키피디아

이후 여러 차례 병이 재발했고, 1994년의 뇌졸중

>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과 경제적 궁핍, 권력자들의 적대감, 비평계의 무자비한 평가 속에서도 창작을 이어 온 그에게 질병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시련"

은 그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는 언어 능력을 잃었고, 신체의 움직임에도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 이전처럼 말하고 악보를 쓰는 일조차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시닛케는 작곡을 이어갔다. 왼손으로 악보를 써 내려가며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제9번」을 완성했다. 악보는 해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분명했고, 1998년 겐나디 로즈데스트벤스키의 지휘로 초연된 연주를 들은 시닛케는 작품의 악보를 철회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고도 한다. 그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연주가 어디에서 자기 생각과 달라졌는지를 모두 알기는 어렵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악보를 둘러싼 작업은 계속됐다. 작곡가 알렉산드르 라스카토프가 악보를 해독하고 정리해 연주 가능한 형태로 새로 완성했으며, 이 완성본은 2007년 드레스덴에서 초연됐다. 시닛케는 1990년 소련을 떠나 함부르크에 정착했고, 1998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해는 다시 러시아로 옮겨져 모스크바 노보데비치 묘지에 안장됐다.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질문

2024년은 시닛케 탄생 90주년을 맞은 해로, 그를 기념하는 음악회가 러시아와 유럽 각국에서 다채롭게 열렸다. 그중에서 특히 그의 고향에 있는 사라토프국립음악원에서 열린 「21세기 공간 속의 알프레드 시닛케의 작품」 기념 페스티벌은 러시아 음악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는 러시아 대통령 지원금을 받아 열린 대규모 프로젝트로, 러시아 여러 음악교육 기관의 관계자와 연주자들이 참여했다. 11월 24일 작곡가의 생일에 열린 기념 연주회는 러시아 전역에 온라인 생중계되기도 했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 작품은 「노란 소리」였다. 추상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의 실험적인 동명 무대예술 구상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시닛케의 음악과 회화적 상상력, 신체의 움직임이 만나는 독특한 무대 작품이다.

2024년 사라토프 무대에서는 알렉세이 즈이코프의 연출 아래 모스크바 음악원 실내합창단, 사라토프 음악원 독주자 앙상블, 사라토프 연극원의 무용단이 함께했다. 또한 「세 개의 성가」, 칸타타 「전쟁과 평화의 노래」 등 자주 연주되지 않던 시닛케의 초기 합창 작품들이 무대에 올려졌다. 러시아의 여러 음악교육 기관 관계자와 연주자들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공연에만 머물지 않고 교육과 연구를 함께 아우르며 작곡가의 작품을 새롭게 조명했다.

서로 다른 시대의 음악을 한 작품 안에 불러들였던 시닛케의 작품은 이처럼 오늘날의 무대에서도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그의 작품은 완성된 과거로 보존되는 데 그치지 않고, 연주자와 연구자, 다른 예술 분야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현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의 음악은 여전히 질문을 남긴다. 서로 다른 전통은 반드시 하나의 질서로 통합돼야 하는가? 과거의 음악은 현재로 돌아오면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새롭게 얻는가?

“서로 다른 시대의 음악을
한 작품 안에 불러들였던 시닛케의 작품은 오늘날의 무대에서도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아”



사라토프에서 열린 시닛케 탄생 90주년 음악회 ⓒ 사라토프국립음악원 공식 인터넷 사이트

하나가 아닌 고향

시닛케의 음악에서는 풍부한 선율과 아낌없는 표현, 눈부신 화려함 뒤로 반드시 또 다른 층위가 드러난다. 그것은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프고, 비극적이다. 그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그의 미소에 대해 이렇게 썼다. “그의 미소 뒤에는 고통과 절망,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믿음도 있었다.”

시닛케의 삶과 작품을 나란히 놓고 보면, 서로 다른 전통을 지닌 사람이 하나의 문화적 이름으로 자신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웠던 경험과 그의 음악 사이에 어떤 울림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고향은 흔히 돌아갈 수 있는 장소로 여겨진다. 어린 시절의 풍경과 익숙한 언어, 오래된 기억이 한데 모여 있는 곳.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고향이 하나의 장소와 기억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여러 언어와 전통, 서로 다른 시대의 경험이 한 사람 안에 겹쳐 있을 때,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은 나머지를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의 삶은 엥겔스에서 빈과 모스크바를 거쳐 함부르크에 이르렀다. 태어난 곳, 음악을 처음 만난 곳, 작곡가로 성장한 곳, 마지막 시간을 보낸 곳이 한 사람의 삶 안에 차례로 겹쳐 있다. 어느 한 곳도 그의 삶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생전에 그를 러시아의 작곡가라고 언급하자 시닛케는 자신이 러시아인이 아니라고 정정하며 자신은 ‘고향 없는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다. 그에게 음악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고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을 끝내 외면하지 않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

훈풍과 한풍 사이
에너지 강국 위상과 연료 위기

김유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특임강의교수

2026년 10월 러시아는 제9회 러시아 에너지 주간(Russian Energy Week)과 제8차 가스수출국포럼(GECF)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미·러 디젤 거래 합의를 통해 서방 제재 속에서도 기술 자립, 북극항로 확장, 글로벌 다층 협력을 추진하며 에너지 강국으로서 대외 영향력을 과시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디젤 공급 합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지원이라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거센 비판과 지정학적 논란을 낳기도 했지만, 미국 시장 접근과 제재 완화 계기 마련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반면 이런 고무적인 대외 상황이나 위상과 달리 러시아는 국내에서 정제·물류 문제로 전국적인 휘발유 부족과 지역별 주유 제한(홀짝제·구매 한도)이 잇따른 가운데, 벨라루스산 휘발유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등 극심한 수급 불균형을 드러냈다. 이는 러시아가 대외적 영향력 유지와 국내 연료 공급 안정,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관리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는
> 아시아를 중심으로 재편된 에너지 교역 구조를 바탕으로
> 국제 협력 범위를 넓혀가”

에너지 강국 위상과 국제 협력 확대: 에너지 주간과 GECF

2026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제9회 러시아 에너지 주간 국제 포럼이 열렸다. ‘에너지 자원·기술에서 미래 번영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85개국에서 약 6,600명의 참가자와 언론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에너지산업의 회복력 강화와 인프라 현대화, 기술 자립 등이 중심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지정학적 충격에 대응하는 회복력’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국산 장비와 소프트웨어 개발, 물류체계의 적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러시아는 가스터빈 설비 시장에서 국산 장비 비중이 84%를 넘어섰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이를 자국의 에너지 기술과 제조 역량 확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내세웠다.[1]

북극 에너지 개발과 북극항로 역시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북극항로를 위해 100척 이상의 내빙급 선박으로 구성된 상선단을 구축하고, 현재 8척인 원자력 쇄빙선에 4척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세계적 규모의 독보적 선단’임을 강조했다.[2] 이는 북극 자원 개발을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 수송 경로를 다변화하려는 러시아의 장기 전략과 연결된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재편된 에너지 교역 구조를



2026년 제9회 러시아 에너지 주간 회의 장면 ⓒ 로스콘그레스

> “러시아는 10월 두 차례의 국제 에너지 행사를 통해 에너지 공급국으로서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영향력 유지와 협력 관계 확대 전략 보여줘”

바탕으로 국제 협력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과의 에너지 인프라 협력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 기술 교류 및 공동 투자도 논의됐다. 특히 카오 킴 호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사무총장은 2015년 이후 러시아의 ASEAN 석유·가스 공급이 50% 증가했으며, 2026~30년 러시아와 ASEAN의 에너지 협력 계획도 채택됐다고 밝혔다.[3] 이는 러시아가 기존의 에너지 수출 시장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기술·인프라·투자까지 연계하는 다층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하려는 방향을 보여준다.

이런 국제 협력 기조는 10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8차 GECF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 가스 수요의 장기적인 증가를 전망하면서 국제 가스 시장의 안정성과 공급망 보호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정세 악화와 유럽행 러시아 가스관의 파괴, 에너지 장비·기술 제재 등을 기존 공급망의 차질과 투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응해 세계 가스 교역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유연한 수송을 활용해 공급 경로를 다변화하고, GECF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4] 아울러 신규 가스전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안정적인 수요 확보와 장기 공급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5] 회원국들은 가스 공급망 보호와 수송 경로 다변화, 기술 협력 및 장기 투자 확대 등을 담은 ‘모스크바 선언’을 채택해 관련 논의를 공동 협력 과제로 구체화했다.

여기에 에너지 제재와 국제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러시아와 이란의 공통된 우려가 드러났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적 제재와 봉쇄 조치가 국제 에너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으며, 푸틴 대통령 역시 에너지 분야의 일방적 제재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막론하고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유럽 외에도 미국과 북극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을 대하는 양국의 에너지 협력 전략에는 차이가 드러났다.[6]

이처럼 러시아는 10월 두 차례의 국제 에너지 행사를 통해 에너지 공급국으로서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협력 관계를 확대하려는 전략을 보여줬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제재로 기존 에너지 교역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단순한 자원 수출을 넘어 에너지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 이런 구상이 실질적인 투자와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지가 러시아 에너지 외교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에너지 강국의 이면: 연료 부족과 공급 불균형

러시아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공급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휘발유 부족과 가격 상승이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다만 10월 하순 들어 가격이 하락하고 일부 지역의

> “러시아는 국내 연료 공급 안정화를 위해
> 휘발유 수입을 확대하고 있고, 계획대로 수입이 이뤄지면
> 전체 공급량에서 수입 비중은 16~18%에 달할 전망”

주유 제한이 해제되면서 수급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러시아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10월 19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78.04루블, 경유는 86.58루블로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0.7%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각각 21%, 13% 높은 수준이다.[7]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는 10월 중순 국내 휘발유 부족률이 약 5% 수준이라고 밝히며, 생산 확대와 수입을 통해 공급 안정을 추진하고 최소 연말까지 수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8]

그러나 연료 수급 개선 속도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수도인 모스크바에서는 10월 19일 기준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75.62루블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앞서 일부 주유소에서 휘발유 품절과 대기 행렬이 발생하는 등 공급 차질을 겪었다. 로스네프트는 9월 21일부터 모스크바 일부 주유소 30곳에서 주유카드와 모바일앱을 통한 휘발유 판매를 중단했으나, 10월 21일 모스크바 시내 주유소에서 판매를 재개했다. 다만 구매량 제한은 유지됐으며, 앞서 20일에 주유카드별 구매 한도가 50리터로 확대됐다.

러시아 중부 지역에서는 연료 공급이 개선되면서 그동안 시행됐던 주유 제한이 잇따라 해제됐다. 랴잔은 8월 28일부터 차량번호 첫 숫자의 홀짝에 따라 주유 가능한 날짜를 구분했으나, 10월 24일부터 해당 제한을 중단했다. 유사한 규제를 시행했던 리페츠크는 10월 21일부터 차량번호와 구매량에 따른 제한을 전면 해제했으며, 탐보프도 10월 23일부터 주요 주유소 대다수에서 홀짝제가 중단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번호와 판매량 제한이 유지되거나 개



휘발유가 동난 모스크바 주유소 ⓒ《MSK1》

별 주유소가 실제 재고와 공급 일정에 따라 판매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에서는 주유 제한이 완화됐지만, 높은 연료 가격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국제법상 우크라이나 영토인 이 지역은 러시아가 병합한 이후 러시아의 행정 체계에 따라 연료가 공급되고 있다. 10월 19일 기준 평균 휘발유 가격은 크림공화국이 122.38루블, 세바스토폴이 126.68루블로 모스크바보다 약 1.6~1.7배 더 비쌌다. 세바스토폴에서는 5월 22일부터 연료 판매량을 제한하고 6월에는 QR코드를 통한 구매 제도를 도입했으나, 공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10월 16일 QR코드 제도를 폐지하고 24일부터 주요 주유소의 구매량 제한도 완화했다.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도 연료 수급이 회복되고 있으나 정상화 속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노보시비르스크에서는 10월 14일 주요 주유소의 차량당 휘발유 30리터 구매 제한이 해제됐으며, 크라스노야르스크와 톰스크 역시 각각 10월 16일과 27일 주유량 제한을 해제했다. 반면 이르쿠츠크와 극동의 사하공화국에서는 여전히 일부 주유소에서 연료 구매량이 20~30리터로 제한되는 등 같은 지역 안에서도 공급 여건이 달랐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국내 연료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휘발유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코메르산트》는 10월부터 12월까지 월 약 62만t의 휘발유 수입이 계획돼 있으며, 주요 공급국은 벨라루스가 될 것으로 보도했다. 계획대로 수입이 이뤄질 경우 전체 공급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1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9] 이는 러시아가 국내 수요를 맞추고 연료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국외 공급에도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월 하순 러시아의 연료 수급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주유 제한 해제와 가격 안정이 모든 지역에서 같은 속도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주요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에서도 정유 시설 가동과 물류 체계, 지역별 유통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이 국내 모든 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러 디젤 합의, 경제 협력 기회인가 전쟁의 새 변수인가?

러시아 에너지 주간을 전후해 가장 큰 관심을 끈 사건은 미국과 러시아의 디젤 거래 합의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9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 이후 러시아산 디젤을 미국과 국제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RBC》에 따르면, 공급 예정 물량은 10월 30만t, 11월 추가 50만t, 이후 100만t이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 가능성도 언급됐다.[10] 이런 공급 계획과 맞물려 미국 재무부는 같은 날 일반면허 제135호를 발급해 러시아산 디젤의 판매·운송·수입 등 관련 거래를 2027년 4월 7일까지 허용했다.

이번 합의에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용했다.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 확대와 미국 시

> “러시아 에너지 주간을 전후해 가장 큰 관심을 끈 사건은 미국과 러시아의 디젤 거래 합의”

장 진출 계기를 마련했으며, 미국은 국제 디젤 시장의 공급 부족을 완화해 국내 연료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했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세계 석유제품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미국의 디젤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베도모스티》에 따르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디젤 가격은 약 68~70% 상승했으며, 이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11]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산 디젤 거래는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였다.

러시아에서는 이 거래를 국내 연료 공급을 유지하면서 수출을 확대할 기회로 평가했다. 노박 부총리는 《베스티》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시장 공급이 우선이며, 미국을 비롯한 국외 시장에는 내수를 맞추고 남는 물량만 수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12]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투자기금 대표는 러시아 에너지 주간 포럼에서 디젤 거래가 미국과 논의 중인 여러 경제 및 투자 사업 가운데 하나라며, 북극 관련 사업, 에너지 및 LNG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13] 다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이번 거래가 정치적 조건과 연계되지 않은 순수한 상업적 합의라고 설명함으로써[14], 경제 협력과 정치적 문제를 구분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10월 22일 러시아산 디젤을 실은 유조선이 대서양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거래는 실제 수송 단계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번 거래가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칠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도 제기됐다. 독립 언론인 《노바야 가제타》가 인터뷰한 석유·가스 시장 전문가 보리스 아론시테인은 이번 합의를 경제적 거래보다는 지정학적 거래로 평가하면서, 디젤 수출 확대가 러시아 국내 연료 시장의 수급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15] 사실 러시아는 경유 생산·수출 구조가 휘발유와 다르므로 디젤 수출 확대가 곧바로 국내 휘발유 부족을 심화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연료 부족과 구매 제한을 이미 겪은 러시아 시민들에게는 수출 확대 자체가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더 큰 논란은 이번 합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산 디젤에 대한 제재 완화를 '전쟁에 대한 투자'라고 비판했다.[16] 러시아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담당 부총리 ⓒ《베도모스티》

의 에너지 수출 수익이 전쟁 지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이 미국 내 연료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격 중단을 요구했다. 양측의 견해 차이가 확대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한다면 우크라이나 역시 정유 시설 공격을 중단할 수 있다는 상호적 에너지 휴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디젤 합의는 경제적 이익과 전쟁을 둘러싼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례가 됐다. 러시아는 수출 시장 확대와 제재 완화 가능성을 확보했고, 미국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추진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약화로 받아들였다. 에너지 거래가 단순한 상업적 교환을 넘어 국제 제재와 외교 관계, 전쟁 지속 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된 것이다.

2026년 10월은 이런 복합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에너지 강국으로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역별 연료 수급과 가격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미·러 디젤 합의는 에너지 협력 확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러시아 에너지 정책의 향후 성과는 국제시장에서의 영향력 유지뿐 아니라 국내 공급 안정과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

1 “Forum Summary.” Russian Energy Week – 2026. 14-16 October 2026. pp. 2-3.

2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Российской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недели – 2026.” https://www.interfax.ru/events/news/1123405

3 Ibid.

4 “Газ есмь царь.” https://www.kommersant.ru/doc/9062286

5 “Путин считает, что инвестиции в 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должны основываться на долгосрочных контрактах.” https://www.interfax.ru/business/1125247

6 “Газ есмь царь.” Op. cit.

7 “О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АХ НА НЕФТЕПРОДУКТЫ С 13 ПО 19 ОКТЯБРЯ 2026 ГОДА.” https://rosstat.gov.ru/storage/mediabank/163_21-10-2026.html

8 “Новак заявил, что дефицит бензина на российском рынке сейчас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5%.” https://www.interfax.ru/russia/1123106

9 “Россия может импортировать по 620 тыс. тонн бензина в месяц до конца года.” https://www.kommersant.ru/doc/9027630

10 “Кремль опубликовал заявление Путина об итогах разговора с Трампом.” https://www.rbc.ru/politics/09/10/2026/6ac947337846b0413ac0a92a

11 “Как мировые СМИ оценили сделку по дизелю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США.” https://www.vedomosti.ru/politics/articles/2026/10/10/1235994-otsenili-sdelku-dizelyu

12 “Новак: поставки дизеля США не повлияют на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России.” https://www.vedomosti.ru/business/news/2026/10/21/1238946-postavki-dizelya

13 “Глава РФПИ заявил, что сделка по дизелю - один из целого ряда проектов с США.” https://www.interfax.ru/business/1123030

14 “Глава МИД РФ назвал дизельную сделку с США чисто деловой договоренностью.” https://www.interfax.ru/russia/1125294

15 “«Дух Анкориджа» пахнет дизелем.” https://novayagazeta.ru/articles/2026/10/12/dukh-ankoridzha-pakhnet-dizelem

16 “Дизельная сделка США и России привела к ссоре Трампа с Зеленским.” https://novayagazeta.eu/articles/2026/10/10/dizelnaia-sdelka-ssha-i-rossii-privela-k-ssore-trampa-s-zelenskim